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매거진

# 월드뷰

WORLDVIEW

# 08

AUGUST · 2017

ISSN 2234-3865



## 교육

### COVER STORY

교육에 대해서 묻다 \_ 김성수 교수

### COLUMN

공부해서 남 주자!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바라보다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의 필요성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기독교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연재칼럼 1]** 교육에 대한 책갈피

**[연재칼럼 2]** 어떻게 교육은 우리 운명의 일부가 되는가?





# SAMSUNG

# 삼성건조기



기다린 보람있죠?

삼성건조기니까  
옷감은 한올 한올 살려주고  
빨래 먼지 걱정 없이  
전기료 걱정 없이

## 이 정도면 인생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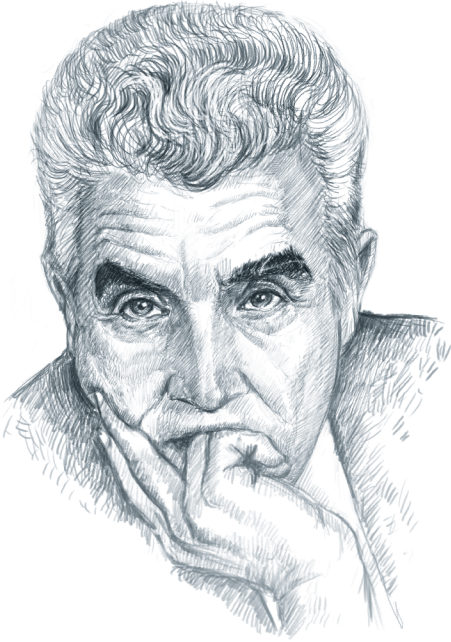
모델명 DV90M52A0Q5

QR코드로  
자세한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옷감은 한올 한올 살려주고, 전기료 걱정 덜어주는 히트펌프</b></p> <p>자연건조 vs 저온 제습 건조 (히트펌프) vs 예상전기료</p> <p>554원 vs 97,500원 절약 vs 179원</p> <p>저온 제습 건조 (히트펌프) vs 저온 제습 건조 (자연건조)</p>	<p><b>빨래 먼지 없애주고, 비우기 편한 올인원 필터</b></p>	<p><b>쉽고 간편하게 조작하는 올인원 리모컨</b></p> <p>본체 불필요 없이 리모컨 화면만 보고 건조정도, 코스, 시간을 바로 확인</p>	<p><b>도어 방향도 마음대로, 설치도 원하는 공간에서 전기식 건조</b></p>
--	---	--	--

\* 예상 전기료는 자사 자체 시험치 기준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준코스 5kg 부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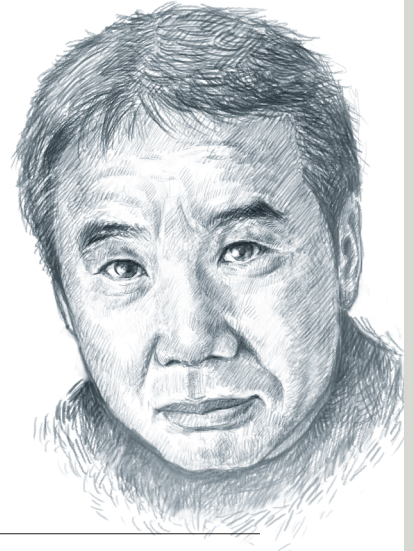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재발견하다!”



르네 지라르와 무라카미 하루키,  
기독교를 옹호하다

# 희생되는 진리는

오지훈  
지음



A5변형/ 444쪽/15,000원

- 러셀과 비트겐슈타인, 왜 갈등했나? 피델이 증명을 통해 말하려 한 것은?
- 지라르가 발견한 십자가의 희생, 하루키의 《1Q84》와 영화 〈곡성〉의 코드를 풀다
- 지라르와 하이트, 현대사회 도덕적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인지불능을 꼬집다
- 한국 교회에 대한 진부한 비판과 옹호 가운데 희생되는 복음의 진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기독교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어떤 접점을 찾아 공감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릴 다가갈 수 있다면 이 책은 나름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내면서』에서

T. 333-5161 <http://www.hsbooks.com>

홍서  
사.



이중언어

기독교 고전교육 기관



**SICA**  
since 2011

**SICA 중·고등 과정 설명회를 엽니다.**

남들은 학습의 속도와 진도를 민감하게 측정하지만  
SICA는 미련할 정도로 학습의 방향에 더 집중합니다.

남들은 명문대 진학자 '숫자' 만을 중시하지만,  
SICA는 우리의 교육이 '진짜' 인지를 더 중시합니다.

남들은 '시험 문제' 를 더 빨리, 더 많이 맞추는 것이  
배움의 열매라 여기지만  
SICA는 '삶의 문제' 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힘, 생각의 힘을 더 귀한 배움의 열매라 믿습니다.

**8월 5일(토), 8월 25일(금)**

**SICA 여주 캠퍼스(기숙형 중·고등 과정)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녀들이) 공부하길 원하시는 중고생/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고전 교육을 통한  
새로운 교육의 꿈을 나뉘 드리겠습니다.

**<SICA 중·고등 과정 입학설명회>**

- 장소: SICA 여주 캠퍼스 2층 강당(경기도 여주시 하거동 711-16)
- 시간: 2017년 8월 5일(토), 8월 25일(금) 오전10시
- 문의: 031.883.7713(여주 캠퍼스)

입학설명회  
안내

**유·초·중등 과정 입학설명회**(유치원-8학년)

일시: 2017년 8월 9일(수) 오전 10시 장소: SICA(서초구 양재동 363)

**입학상담** 02.557.7710(양재) | [www.sicakorea.org](http://www.sicakorea.org)  
031.883.7713(여주)



# 찾아가는 세계관 강좌

세계관으로

뭘, 어떻게 하리-고요?

세계관으로 문화를 보고  
또 기독교적 안목으로 읽자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하셨죠?

방법을 몰라서  
또는 너무 멀어서  
고민하던 분들에게

"찾아가는 세계관 강좌"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You Tube **찾아가는 세계관** 🔍

유튜브에서 **찾아가는 세계관** 을 검색하세요!  
꼭 **구독** **좋아요** 를 마구 눌러주시면 됩니다.

## 시즌 1. 삶과 문화

[사선에서 :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윤리] \_박상은 (안양생병원 원장)

- 1부. 생명, 그 존귀함
- 2부. 생명윤리의 원칙
- 3부. 생명의 마지막 윤리, 어떻게 죽을 것인가?
- 4부. 죽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찾아가는 기독교세계관 강좌 WORLDVIEW]

현대사회와 문화1 : 현대문화의 사상적 특징\_강진구 (고신대 교수)  
현대사회와 문화2 : 성경으로 본 현대 문화\_강진구 (고신대 교수)  
역방과 혼밖의 문화를 읽다\_강진구 (고신대 교수)

기독교세계관과 대중문화 : 대중문화의 불편한 진실\_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지저스웨거 비와이\_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호모비올로기쿠스 1. 인간학으로 본 대중문화와 기독교\_추태화 (안양대 교수)  
호모비올로기쿠스 2. 전통문화를 만드는 육체, 문화의 기초\_추태화 (안양대 교수)  
호모비올로기쿠스 3. 대중문화에서 육체, 그 경계의 유혹\_추태화 (안양대 교수)

# Contents

AUGUST · 2017



## COVER STORY

커버스토리  
교육에 대해서 묻다 | 김성수 교수 9

## SPECIAL

발행인의 글  
한국의 교육을 생각한다 | 김승욱 6  
대표주간  
공부해서 남 주자! | 손봉호 18  
기획칼럼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바라보다 | 이경원 21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의 필요성 | 정희영 25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기독교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 | 박상호 30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 김성수 34

## COLUMN

연재칼럼 1  
교육에 대한 책갈피 | 송인규 40  
연재칼럼 2  
어떻게 교육은 우리 운명의 일부가 되는가? | 이정일 4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19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니 | 김현수 50



## WORLD VIEW

2017년 8월호 | WORLDVIEW | 통권 206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예금주: 세상바로보기



# WORLD VIEW



## CULTURE

손봉호의 유머 모음	
손을 잡으시오   손봉호	17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투자, 미녀 그리고 옷장	58

## NEWS

재정보고	62
후원명단	63
사무국 소식	64
8월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일정	64

## CONTENTS

루터의 도시를 가다 #18	
할레   추태화	56
광고	
목회자들의 뷰(안목)를 넓히기 위해	
VIEW를 추천합니다!   김인수	60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발행인 김승욱 | 편집간사 곽우정 | 디자인 · 인쇄 디자인집 | 제작 (주) 세상바로보기 | 전화 02-718-8004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 페이스북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한국의 교육을 생각한다

김승욱 (발행인)

이달의 표지 인물로 김성수 총장을 모셨습니다. 인터뷰에는 한동대학의 한윤식 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김성수총장께서는 기독교학문연구회 시절부터 교육분과장과 연구회 회장 및 기학연 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세계관 운동에 앞장셨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8년간 총장을 역임하면서 진정한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지난 노력과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외에도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김성수 총장의 견해를 별도의 칼럼으로 엮었습니다.

이 달에는 특집을 교육분야로 잡았습니다. 새정부 들어서서 '경쟁없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특권학교라는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으로 사회가 시끄럽고, 교육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현행 교육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 대안도 많이 생겼고 해외에 자녀를 유학 보내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도 역시 수월성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들이 대부분 재정난에 시달리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공교육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에서 정치문제에 뛰어들게 된 이유도 바로 기독교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카이퍼가 주장했던 것은 기독교인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도 공립 학교와 똑같이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학교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카이퍼가 주장했던 그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이슈를 소개합니다.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정희영 교수는 2012년 이후 시행되는 누리과정이 기독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습니다. 누리과정이란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인데, 모두가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평가도 누리과정을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의해 받게 되어 있고, 누리과정에서 교육은 중립이므로 종교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 유치원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의 이경원 교장선생님은 반드시 기독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공교육은 모두 인본주의적 교육을 하고, 이원론에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을 앞세우는 대안학교들의 교육 현장에서도 공교육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고전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기독교 고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인본주의 교육관과 하나님 중심의 교육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박상호 선생님은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도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청소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요즘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산만하고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박상호 선생님은 자아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송인규 교수께서 책 소개하는 코너 책갈피를 맡아주셨습니다. 각 호의 주제와 관련해서 독자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를 추천해주는 코너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책을 사랑하고, 많은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인규 교수님께서 선별해서 추천해주시는 책은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씩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큼니다.



글 | 김승욱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사학회 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

#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b>대표주관</b>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b>발행인</b>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b>편집위원</b>	강진구 김정호 김태황 박상은 송인규 신국원 우중학 이승구 조성돈 조영길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인양생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대학원대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 신학박사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b>실무진</b>	곽우정	월드뷰 편집간사, 장신대 신대원 졸업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원장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중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b>이사회</b>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익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생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만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감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b>실행위원회</b>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문소영(명지대 교수), 문준호((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부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성철 (명지대 교수), 이재희 (가천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 교육에 대해서 묻다

김성수 교수 (고신대학교 전 총장) / 인터뷰어: 한윤식 교수 (한동대학교 교수)

**Q. 총장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기독교 학문 운동에 헌신하셨는데,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국내에서 존 듀이(John Dewey) 교육철학 연구에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았습니다. 지도교수님은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중직자였었는데 강의실에서는 한 번도 성경적 관점에서 교육학에 접근해 보도록 도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일의 신앙과 연구실에서의 학문 활동은 철저하게 별개의 행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고신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했을 때 첫 강의에서 저는 정말 ‘용감’하게도 학생들에게, “신앙과 학문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웃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항상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 관점이 제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육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육학을 성경적 신앙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헨리 미터의 “칼빈주의 문화관”을 읽으면서 한 가닥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고, 교육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문과 책들을 조금씩 대하면서 연구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이공화국 포츨스트룸대학교(Potchefstroom University)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기독교학문에 심취하

게 되었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일에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신앙과 학문행위가 조화를 이루게 되니 관련 분야의 논문과 책들을 읽고 연구하는 자체가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책의 활자와 문장들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84년도에 귀국하니 이미 국내에서는 양승훈 교수님이 ‘기독교대학 설립 동역회’ 운동을 활발히 하고 계셨고, 김현수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독교학문연구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과 같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Q. 고신대학교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총장(2005년부터 2013년까지)을 역임하셨는데, 총장시절에 기독교학문 운동을 위해서 어떤개혁들을 하셨는지요?**

기독교학문 운동을 위해서 개혁적인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다만 고신대학교가 기독교세계관과 학문 운동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봉사했을 따름입니다. 유학시절 포츨스트룸대학교의 경우를 보니 ‘학문의 이론(1)’이라는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기독교세계관의 기본적 관점을 갖게 하고, ‘학문의 이론(2)’를 통해서 자

신의 전공과목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돌트대학(Dordt College)의 경우는 '철학 101' 과목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철학적, 세계관적 기초를 구비하게 하고, 4학년이 되면 '소명, 과업 그리고 문화'(Calling, Task and Culture)라는 정책 과목을 통해 세속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에도 '기독교대학과 학문'이라는 정책과목을 개설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에 기독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교수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교수들이 기독교적 학문 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구소의 설립과 대학원 학생들이 기독교적 학문 연구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Q. 신임 교원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을 강조하 시기도 하고, <신앙과 학문>에 투고를 적극 권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들을 어떻게 격려했는지요? 결과는 어떠했는지요?**

교수들이 기독교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시행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외국의 저명한 기독교 학자들을 초빙해 그들의 강의를 직접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엘 월터스, 제임스 사이어, 니콜라스 월터스토폴프, 샌더스 호리피운, 마이클 고힌, 베니 반데발트 등 정말 많은 학자들을 초빙했습니다. 캔 허만, 리차드 에들린 같은 학자들은 몇 학기 동안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대학원 강의와 교수연수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교수들이 기독교학문 운동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유익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는 교수들이 기독교 학문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학문 분야의 번역 과제, 공동 저술 과제, 중점 연구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었

습니다. 셋째는 매 학기 국내외 저명한 기독교 학문 분야 학자들을 초빙해서 '개강학술특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해서 귀한 강의 내용을 번역 출판함으로써 교수 및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에 대한 관점과 통찰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기학연 주최의 기독교학술대회와 한동대, 백석대, 고신대가 함께 개최했던 기독교대학과 학문에 관한 공동 학술대회는 교수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넷째는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교수들이 외국의 기독교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총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런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임교수들을 독려하는 일은 비교적 용이했지만 이미 이원론적인 사고에 안주해 있거나 기독교적 학문 운동에 냉담하거나 관심이 없는 교수들을 자극하고 격려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Q. 외국 학생들을 받아서 기독교세계관을 적극적으로 교육하셨지요?**

저는 고신대학교가 복음의 빛을 짚는 세계선교중심대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국, 동남아 등 소위 제3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서 이들을 선교사와 목사, 청소년 지도자로 양성해서 파송하기 위해 외국인인을 위한 목회학 석사과정(M. Div.)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지도자들이 지금 탄자니아, 케냐,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케냐데이스타대학교(Daystar University) 출신 벤슨(Benson)군은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미국 시카고 시티 칼리지(City College of Chicago)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Q. 선교지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대학들이**



인터뷰를 진행 중인 한윤식 한동대 교수(왼쪽)와 김성수 전 고신대 총장(오른쪽)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수 확보와 재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 대학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요?

신실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선교지에 신학교와 기독교대학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 선교지 대학들이 기독교대학으로 잘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성원들이 동질적 신앙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서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뜨거운 가슴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대학이나 학교를 세우기 전에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다음에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예배하기 위한 교회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신앙가정의 자녀들을 주일



“앞으로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니 국가의 교육독점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는 부모에게 있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한 유치원과 기독교학교의 설립, 그리고 교회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의 설립이 뒤 따라야 합니다. 넷째는 기독교대학을 설립할 경우 인문학과를 중심으로 전공과목을 개설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취업과 자기고용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의 전공을 개설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확보와 훈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개혁과 교회 사역자 양성에 힘쓰지 않으면 한국교회를 상대로 하는 후원금 확보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Q. 미국의 칼빈대학교가 기독교대학으로서는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고신대학교가 이에 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빈대학교와 비교해서 고신대학교에서 추진한 자랑스러운 일을 이야기해주시지요.**

기독교세계관과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고신대학교를 미국의 칼빈대학교와 ‘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기독교대학을 향한 동일한 비전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한동대학교 역시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기독교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칼빈대학교와 고신대학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간 추진했던 몇 가지 자랑스러운 일들을 회상해 본다면 고신대학교가 좀더 선교 지향적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해는 많게는 200여 명의 고신대학교 학생들을 해외봉사단원으로 파송해서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하던 일, 또 복음병원장과 함께 북한 평양 보통강 호텔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평양제과제빵 공장과 집단 농장, 그리고 정말 열악한 평양의대 부속병원을 한민족복지재단을 통해 후원하면서 평양봉수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은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유학 와서 생전 처음 겨울을 맞이하며 흰 눈을 마냥 신기하게 대하던 아프리카 학생들을 무주 스키장으로 데려가서 스키를 함께 타며 즐기던 시간들도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지요.

**Q. 교육학 분야에 기독교적 관점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육학 분야에 기독교적 관점을 접목시키는 과업, 다르게 말하면 교육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 또는 구속의 의미를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 보는 협의적 관점에서 보다 더 우주적, 총체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영역에는 그 어느 것도 구속의 범위 밖에 버려둘 것이 없다는 관점이지요. 교육학 분야 역시 인간의 타락의 영향으로 왜곡되었기에 구속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따라서 교육학 연구와 신앙적 행위를 구분하는 이원론



적 관점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분야에 기독교적 관점을 접목하는 것은 소위 일반 교육학에 기독교적 가치를 단순히 추가하거나 피상적으로 적용 또는 조화시키는 부대적(extrinsic) 관계가 아니라, 교육학 자체의 내적개혁(inner transform)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육학의 내적개혁은 교육학을 기독교화하거나 기독교적 목적을 위해 교육학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 또는 관점, 특별히 인간관, 실재관, 가치관의 전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학문의 역사는 전통적으로 합리주의, 실용주의, 과학주의, 실증주의, 구성주의 등과 같이 기독교 복음에는 이방적인 토양에 그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교육학의 토양과 뿌리를 혁신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토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육학 자체의 내적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제 또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가정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내재적 오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예리한 통찰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관점과 전제를 달리 했을 때 어떤 비판과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험적 비판의 능력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창조-타락-구속)의 기본적인 틀은 물론, 기독교 철학적인 틀을 가져야 합니다.

**Q. 오늘날 한국의 교육행정이 보다 기독교 정신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혁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학생들이 혼동스러워 하는데, 현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지요?**

교육정책은 정치권이나 이익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논리에 따라 조령모개 식으로 바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해서 비교적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는 교육부

의 수장이 바뀔 때 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언제나 전문성과 합리성, 그리고 교육적 원리에 입각해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와 가치관의 틀을 통해서 교육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인기위주의 공약을 쏟아놓고 시행하려고 하면 교육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가 교육에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실질적인 사립학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하고, 커리큘럼 등 일체를 정부가 간섭을 합니다. 대학교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 정부는 대학교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교육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이미 공립화되거나 준공립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편성권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니 국가의 교육독점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는 부모에게 있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국가가 거의 독점적으로 통제 관할하고 있는 학교라는 제도도 원래는 지식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분화로 말미암아 소위 교사라고 하는 어떤 전문 집단에게 부모들 편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권리를 일부 위임해 줌으로써 생겨난 것이지 처음부터 공공교육의 형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가 가질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 되돌려져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통치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국가는 교육의 질과 수준을 결정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질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의 수준을 결정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합당한 방책으로 재제를 가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는 때로 공교육제도를 입안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학교는 어디까지나 부모들에 의해서 설립되어야 하지만 부모들이 만약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될 때에는 국가가 공교육제도를 마련하여 장래 시민들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당한 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의무교육 제도를 주창한 것은 부모의 교육적 책임과 권리를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을 학

대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소홀히 한 당시 사회의 부모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가정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장래 사회와 국가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들의 교육을 등한시 할 때 국가는 합당한 방책을 강구하여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가는 장래 시민들의 교육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가 제공한 제반 설비들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일차적인 권리와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와 틀을 통해서 교육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의 기회를 독점하고 규제하기 보다는, 부모의 세계관을 따라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더욱더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획일적인 교육보다 자율적인 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과 6.25 전쟁 후에도 황폐했던 한국을 재건하는 일에는 교육의 힘이 지대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역시 문맹퇴치, 과학기술의 도입, 경제발전, 여성인권 신장, 민족지도자 양성 등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는 이와 같은 교육의 힘과 역할에 대해 신뢰보다는 오히려 불신감이 팽배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육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성과 자율성의 신장보다는 획일적, 억압적, 통제적, 독점적인 경직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제도 및 학교라는 사회적 기구 그 자체가 실제로는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사를 보면 19세기 말까지는 교육에 대한 비판이 주로 문화전승이라고 하는 보수적 기능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도 주로 학습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 학교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교육의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의 조화 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학교와 교실의 심리적 분위기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학교가 감정적이며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을 개발시키지 못하고 있다거나, 교육이 아동의 자유로운 성장과 자율적인 자기 개발을 방해하거나 제한 또는 질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사와 학부모는 교육에 대한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독교교육은 현대의 공교육제도가 선택보다는 복종, 인간성회복보다는 제도화된 굴종과 복종감을 조직적으로 함양하여 기존 문화의 가치 체제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훈련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비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율성의 신장에는 언제나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독교대안교육이 종교적 신념의 자율성과 특수성만을 주장하면서 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소홀히 해서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대안교육이 빈약한 수준의 교육시설을 연상시키면서 수업시작 전후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다른 교과목과는 하등의 관계없이 성경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평생 교육에 종사하시면서 오늘날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전에는 학생과 교수 또는 선생과 끈끈한 관계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학생들이 단지 취업을 위한 지식을 얻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영어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습득에는 열심이지만, 인간관계나 인성 교육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 교육에서는 이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68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수님을 생각하던 마음이나 자세와 오늘날 학생들의 그것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와 스승간에 있어야 할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끈끈한 관계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중학교 여교사의 수업시간에 남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일부 교사들은 그게 뭐 대수로운 일이나는 반응을 보이는 통탄스런 일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지식은 발전해 가지만 인간성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자유, 존엄성, 자율성, 자아실현을 교육과정의 지도 지침적 원리로 보면서 '학습자의 주권'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극도의 낙관론적인 인간관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교육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 자신 외에 타인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느냐를 결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동은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개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의 창의력, 독창력,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육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어떤 학습자도 단순히 교육적인 주조나 교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교육의 장에서 모든 형태의 외적인 권위를 다 거부해 버린다는 것은 훈련이나 징계를 자유의 개념과 대치되는 것으로 보는 왜곡입니다. 훈련, 징계, 자유는 상호독립적으로 획득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질상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에 아동의 자연적 욕구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지도적인 원리 또는 규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교육은 아동의 전적인 자유와 자율성, 학습자의 주권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자유는 규칙과 규율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서 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기독교교육의 장에는 언제나 훈련과 온화한 징계가 참된 사랑과 친절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행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Q. 사모님께서 음악을 전공하셨고, 독일인 사위가 피아프오르간의 대가라고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여러 번 바하(Bach) 전곡을 연주했다고 하지요? 한국에도 방한해서 피아프오르간 연주회를 했다고 들었는데, 가족 소개를 좀 해 주시지요. 자녀양육에 총장님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요?**

아내(이경숙)는 2남 6녀 중 셋째 딸이고 저는 2남 4녀 중 장남입니다. 장인은 고려신학교 4회 졸업생인 이맹희 목사님이시고 저의 선친도 늦게 신학을 하셔서 고려신학교 13회로 졸업하신 김종만 목사님이십니다. 아내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교회반주자로 봉사했습니다. 교회반주자로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의 부친이 소개해 주셔서 77년도에 결혼했고 1남1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두 자녀 모두 제가 미국 돌트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는 것을 계기로 아이오와주 수 센터(Sioux Center)에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들(김광현)은 돌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미국 LG 법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딸(김은혜)은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후 미국 버지니아 로올라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위(Felix Hell)는 파이프오르간 연주자로서 여러 나라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바하 전곡을 연주하는 등 두 차례 정도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되 특별히 제가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친 기독교적 교육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과 교회봉사를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WORLDVIEW

# SPECIAL



## 손봉호의 유머

회교 이맘 하나가 물에 빠져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허우적거렸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가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내시오. 손을 내 놓으세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이맘은 귀머리가 되었는지 들은 척도 않고 연신 고함만 질렀다.

그러자 랍비 한 사람이 물가에 모인 군중을 헤치고 나서서 자기 두 손을 내밀며 이맘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잡아!” 그 말을 듣자 이맘은 비로소 구원자의 손을 잡고 물에서 빠져나왔다.

구경꾼들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랍비 왈

“나는 이 녀석을 잘 알고 있소. 그는 구두쇠라 절대로 제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소.

‘손을 내시오’ 해서는 죽어도 내놓지 않습니다.

‘내 손을 잡으라’ 하니 그제야 덩석 잡고 나온 거지요.”

# 공부해서 남주자!

손봉호 (대표주간)



한동대학교 설립을 이끌고 초대 총장직을 역임한 김영길 박사는 “공부하여 남 주자!”란 구호로 유명하다. 지금은 자주 들리지 않지만 한 때는 한국의 부모, 교사, 친척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독려할 때 입버릇처럼 한 말이 “공부해서 남 주나?”였다. 김 총장은 그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특히 한국 학생들은 모두 자신을 위하여 공부한다. 그런데 돈은 벌어도 도둑, 사기꾼 등 남이 가져갈 수 있고 명예와 권력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공부해서 얻은 지식은 아무도 훔치거나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지식을 얻는 공부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기적인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인 오늘날에는 더 더욱 그러하다.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도 따라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지

식기반사회가 이룩될 수 있었던 것 그 자체도 바로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고 개발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천연자원, 영토, 인구, 기후 등 자연조건이 사회의 부와 힘을 생산해 주는 자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엔 인적자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라 한다. 인적자원도 과거에는 육체노동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지식과 기술이 핵심이다. 그런데 지식과 기술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은 것은 한국인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열이 높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육의 열매는 “남 주지 않고” 내가 독점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도 그 부스

러기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네덜란드 의사 만더비어(B. Mandeville)가 말한 것처럼 “사적인 악이 공적인 이익”(private vices, public benefits)을 가져 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모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부스러기로 사회 전체가 풍요롭게 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그 가장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런 질서가 사회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삶을 편리하게 하며 여유 시간을 허용하여 예술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과 풍요가 과연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가? 물론 굶주림, 질병, 혹독한 추위와 더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아직도 인류의 10분 1 정도는 그런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빈곤에서 해방된 10분의 9 에게도 계속되는 발전이 행복을 그만큼 더 증진하고 삶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는가?

“인적자원”이란 말을 철학자 칸트가 들었으면 노발대발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유명한 『정언명령』(定言命命)에서 사람을 항상 목적으로만 삼아야지 결코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자원’이란 말은 경제적인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자료 혹은 동력이므로 인적자원이란 사람을 경제적 가치의 생산 원료 혹은 도구로 취급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인간이 존엄한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생산하는 인간(homo faber),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에 불과한 존재로 격하된 것이다.

“공부해서 남 주나?”의 정신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잘

---

공부해서 얻은 지식은  
아무도 훔치거나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지  
식을 얻는 공부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기적인 것이다.

“남 안 주기” 위하여  
그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결과  
경쟁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서  
한국인 대부분이 불행해지고 만 것이다.

---

살게 된 한국인은 과연 행복해졌는가? 미국의 퓨 연구소(Pew Research Center)와 OECD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부탄,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 낮다. “남 안 주기” 위하여 그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결과 경쟁심과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서 한국인 대부분이 불행해지고 만 것이다.

최근 하버드 대학, 밴쿠버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UBC), 미국의 국립건강연구소(NIH),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Case Western Reserve) 대학 등은 소득의 크기보다 그 소득을 어떻게 쓰는가가 행복감의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하버드와 UBC의 2016년 공동연구에서 일반 시민 46명에게 5불 혹은 20불이 든 돈 봉투를 무작위로 나누어 준 다음 참가자 절반에게는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나머지 절반에게는 남을 위해서 쓰도록 한 결과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남을 위해 쓴 사

공부해서 줄 “남”은 바로 약한 이웃이다.  
그리고 “남 주기 위한 공부”는  
사랑일 뿐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공부해서 남 주나?”의 논리보다  
“공부해서 남 주자!”의 논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며  
삶을 의미 있게 한다.

람의 행복감이 자신을 위해서 쓴 사람들의 행복감 보다 높아졌음을 발견했다 한다. 일반적으로 투명성과 기부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은 것도 비슷한 상관관계를 말해준다.

스웨덴 신학자 니그렌(A. Nygren)에 의하면 에로스는 “자기중심적 사랑”(ego-centric love) 혹은 “욕망의 사랑”(love of desire)이다. “공부해서 남 주나?”의 논리는 “에로스의 질서”를 생산했다. 신학자 네일(S. Neil)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를 “사람의 의지가 타인의 영원한 행복(well-being)을 꾸준히 추구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아가페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 그 목적이 있다. 바로 “공부해서 남 주자!”의 논리다. 에로스 사랑이 지배하는 자연인의 감정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가페를 위해서는 “의지”가 동원되어야 하고, 의지가 작동하려면 명령이 주어져야 한다. 사람을 그대로 두면 에로스에 의하여 행동하므로 성경은 아가페를 ‘명령’하는 것이다.

성경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타인(이웃)은 “모든 사람”이지만 특히 고아, 과부, 이방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등 “약한 사람”들이다. 약한 이웃을 돕는 것은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약하게 되는 것은 선천적인 원인이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불의(injustice)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의의 피해자를 돕는 것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의 정의는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인 예일대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 교수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와 정의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부해서 줄 “남”은 바로 약한 이웃이다. 그리고 “남 주기 위한 공부”는 사랑일 뿐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그런데 최근 연구는 아가페는 결코 자신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부해서 남 주나?”의 논리보다 “공부해서 남 주자!”의 논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며 삶을 의미 있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바라보다

이경원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학원 원장)



Q: 한국에서 과연 기독교 교육이 가능할까?

A: 입시는 어떻게 하고...

우리들에게 교육은 입시라는 등식이 성립 되어있고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매우 높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반드시 넘어야 하는 벽은 사실 입시가 아닐지도 모른다.

## 1. 기독교 교육의 적 인본주의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부의 책임으로 여기고 정부도 당연히 교육은 나라의 몫이라 여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존 러쉬두니(John Rushdoony)는 기독교 교육 무엇이 다른가? <5과, 교육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166~174쪽>에서 국가와 그 통치자

의 신성을 절대화하여 인신제사의 희생을 했던 이방 종교와 현대의 국가에 의한 인간 통제를 위한 공립학교 설립의 이유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 대신 국가와 그 통치자를 절대적인 개념의 자리에 놓고 인간과 교육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희생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했다. 사실, 성경은 두가지 중요한 흐름을 기록하는데, 하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유를 막는 절대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주체가 된 인간나라이다. 교육의 영역도 중립적이지 않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인간의 나라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성경적 전제를 가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수 천 년의 역사와 민족들을 통해 인간이 주인인 교육과 그 결과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치열한 전쟁터로 아이들을 내모는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의 공교육을 통해, 인본주의 교육의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이며,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교육이라는 몰록신에게 우리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받치기를 멈추고 교육의 본질을 되 찾아와야 한다. 사실 모든 과목을 성경적 전체들의 관점에서 가르치며 모든 아이에게 하나님말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제공하는 기독교 학교의 역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러쉬두니는 말한다.  
<기독교 교육 무엇이 다른가? 173쪽>

## 2. 기독교 교육의 적 이원론

그렇다고 우리에게 기독교학교와 교육이 있음에도 그 영향력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교육의 영역에서 합당한 순종을 돌릴 것을 요구하지만 현재는 교육은 교육이고 신앙은 신앙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교육 안에 뿌리 깊게 내린 이원론이다. 교육, 정치, 과학,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그리

스도가 주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관한 영역을 영적인 영역에 가두어 물질적인 영역에서 주 되심을 부인함으로 악과 타협하는 것이 이원론이다. 사실 성경은 모든 언약자녀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도 절대적인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3. 교육의 문제는 배움에 관한 이야기이고 배움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 문제이다.

공교육현장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할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넘어서야 한다. 기독교 교육이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 입시도 넘어야 하고, 아이들 모두를 행복하게 할 교육을 만들고 싶겠지만 두가지 다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고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왜 우리는 이 질문에서 떠나지 못하고 두 가지를 다 잡으려 할까? 아마도 존 듀이의 인본주의 공교육이 기선을 잡아 통합되어야 할 과목을 나누어 가르치는 구조적 모순속에서 기준과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표류하다가 사고하는 법과 가르치는 법을 잃어 버린 것이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순들을 질문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도록 만든 공교육의 힘이 느껴진다. 그럴결.. 될결..이라는 막연한 희망과 잘못된 경험을 따르는 비논리성이 믿음을 대치한지 오래되었다.

사립학교 교육을 포함한 공교육도, 미션스쿨이라 이름하는 기독교 교육도, 기독교를 가장 앞에 내세우는 대안학교도 안개 속을 걸을 때가 많다. 교육방향과 방법을 다루는 교육철학을 보더라도 일반 공교육과 기독교 학교사이에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혹 좋은 시작을 했더라도 현실의 벽 앞에 뒷걸음치기 십상이다. 사실, 기독교인은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보면 경주를 할 때 승리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 교육의 영역도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신앙의 영역이라

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 4. 기독교 고전교육이 답이다.

기독교 학교는 반드시 예수그리스도 중심의 교육 철학과 커리큘럼, 가르치는 방법이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고전 교육은 이미 소화시킨 교과서 보다는 성격적, 혹은 비 성격적인 내용들을 분별하도록 살아 있는 책, 기독교 고전과 인문학 책을 사용하며, 문법, 논리, 수사의 삼학Trivium을 따라 가르친다. 삼학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성경적인 방법이며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사용한다.

문법단계에서는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실과 규칙을 밝히고,

논리학은 추론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실들과 규칙들을 밝히고,

수사학은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사리와 규칙들을 밝힌다.

〈기독교적 고전교육198~199〉

지면상 문법과 수사학을 제외한 논리학을 왜 기독교가 가르쳐야 하는지 하비&로리 블루턴의 “기독교적 고전교육” 6장 논리학 학습부분을 정리하였다.

#### 5. 논리 가르치기

지금 우리 문화는 너무 많은 논리 (다원화논리주의 polylogism)에 직면해 있고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모두가 똑같이 타당하다는 한다. 불합리하고 가치 없는 다원화 논리주의로 인해 참된 논리를 거부하고 도덕은 선택의 권리가 되어, 죄의식을 주고 선택을 방해하는 절대적 기독교의 도덕은 버려지게 된다. 예를 들면, 낙태의 문제도 옳고 그름 즉,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시각보다 인간 선택의 문제가 되며 그 순간 기독교와 그 신과 나

아가 기독교인은 여성의 삶을 옥죄는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적 고전교육 162~166〉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 아이들에게 언제 준비시킬 것인가? 논리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춘기 때이다. 논리 수업 뿐 아니라 가능한 다른 과목 안에 사실, 의견, 모순 등 사고를 통해 문제점들을 걸러 내도록 토론과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논리는 진리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논리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

Q: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이교도 철학자에 의해 발명되지 않았는가? 이는 이교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가?

A: 전구는 이교도 에디슨에 의해 발명 되었다. 우리는 에디슨의 철학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전구는 하나님의 세계의 진정한 법칙을 유용하게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진정한 법칙을 유용하게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의 사실적인 추론의 과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이교도를 사용하신다.

〈기독교적 고전교육 제6장 186쪽〉

#### 6.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 교육 비교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과 인본주의를 비교하면서, 내 아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서있는 교육의 현장이 어디인지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싶다. 교육이 예수그리스도를 향할 수만 있다면 다음세대를 얻을 것이고, 교육 현장이 천국이 될 것이며, 배움의 즐거움은 회복되될 것이라 믿는다.

성경은 모든 언약 자녀의 생명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육영역에서도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육은 교육으로, 신앙은 신앙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인본주의 교육관 vs. 하나님 중심의 교육관**

1. 인간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결정, 선택해  
야 한다.

vs. 하나님이 선이시고 진리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2. 진리란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다.

vs.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이 진리다.

3. 교육은 아이의 자기실현이며 자기 계발이다.

vs. 교육은 진리 체계 안에서의 훈련이다.

4. 교육을 통해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교육은 억제로  
부터의 자유이며, 진리가 우리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모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이다.

vs. 교육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와 아이의 의지는 하나님의 목적  
에 맞추어 깨어져야 한다.

5. 학교와 세계는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야 한다. 학생  
이 교사를 평가한다. 아이의 의지는 성스럽다.

vs.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  
는 그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교사가 학생을 평가한다.

6. 인간의 문제는 사회이다. 사회는 인간에 의해 재창  
조 되어야 한다.

vs. 인간의 문제는 죄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  
되어야 한다.

7. 가족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개인 혹 사회가 기  
본이다.

vs.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본제도이다.

**사용한 책**

- 1. 기독교적 고전 교육(Teaching the Trivium)  
-하비, 로리 블루던 (꿈을 이루는 사람들)
- 2. 기독교 교육 무엇이 다른가? (The Philosophy of  
the Christian Surriculum)  
-루서스 존 러쉬두니 (꿈을 이루는 사람들)



글 | 이경원

SICA(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학원)의 원장으  
로 역임하며, 하늘소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지  
휘자로 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음악 작곡 석사  
및 박사를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  
업하였다.



#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의 필요성

정희영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였으며 그 시대의 사상과 필요를 반영한 소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그 나라 교육의 방향을 규정하고 현대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와 변혁을 반영하는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개선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누리과정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구성된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개정되어 왔던 유치원교육과정이 2012년에 누리과정이란 이름으로 어린이집 교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과 통합되어 다시 재구성된 것이다. 누리과정은 그 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통합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의 누리과정의 의의를 찾는다면, 누리과정이 나오면서 유아의 교육비가 국가에서 지원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아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2012년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일부의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급여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역사에서 갖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누리과정을 마치 국정 교과서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누리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각각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의 이념이나 철학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이제

는 모두가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평가도 누리과정을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의해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독교적인 철학에 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나 원장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에서 교육은 중립이므로 종교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누리과정이 중립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대해 기독교인 교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할 지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의 철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누리과정의 철학적 뿌리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된 교육과정의 내용이 처음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발전은 학자에 따라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유치원 설립 초기부터 광복 이전까지, 또한 광복 이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된 현재까지이다.

### 광복 이전의 유치원 교육과정

광복 이전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크게 두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프로벨의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듀이의 교육철학이다. 특히 광복 이전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사상을 듀이의 사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선교사 브라운 리(Brown Lee)의 영향이다. 당시 변혁기를 맞았던 미국 유치원 교육의 진보적 영향을 받았던 브라운 리는 이화유치원의 교사로서 유아를 교육하였고 1915년 개설된 이화유치사범과에서 유치원교사를 양성하였다. 브라운 리는 1932년 힐이 호레이스만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모아 만든 교육과정(A Conduct Curriculum for the Kindergarten and First Grade)을 『활동에 기초한 아동교육법』이라고 번역하여 보급하였다. 힐이 고안한 『활동에 기초한 아동교육법』은 진보주의 이론을 도입한 교육과정이다. 그는 1887년 켄터키의 루이스빌 유치원 교사양성학교에서 지도자로서 진보주의에 입각한 유치원 교육이론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이론을 발전시켰다. 1905년 힐은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그의 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이때 듀이도 1904년 시카고대학을 사임하고 콜롬비아대학에 재직하면서 힐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였을 것으로 본다. 특히 교육과정의 첫 번째 시도에서는 힐이 주로 듀이의 교육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광복 이전 유치원 교육에 영향을 미친 교육철학은 듀이의 교육철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광복 이전에 유치원 교육에 영향을 미친 사상이 듀이의 사상이라는 근거는 구한 말 정치적, 교육적, 종교적 상황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말기의 개화기에서부터 국권이 상실된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세에 대한 문화개방을 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렸으며, 동시에 서양의 과학과 기술의 강력한 힘을 목격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망과 탈출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교육적으로는 그 동안의 유교적 교육의 모순으로 인한 세도정치와 관리의 횡포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질서구조를 요구하게 되어 새로운 시대적 사상과 현대적 의미의 교육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교사상이 그 자리를 잃게 되자 우리 민족은 종교적인 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고 기독교를 수용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로 구성된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서 수학하게 된다.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대부분 미국의 교육을 그대로 들여와 교육을 하게 되는데, 듀이의 철학에 의한 교육이었다.

셋째, 듀이사상의 영향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세워진 근대식 학교에서의 교육과 미국 유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85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가 한국에 들어와 1920년 연희전문학교를 창설한다. 이때 언더우드는 피셔(James E. Fisher)와 함께 강의하는데, 피셔는 듀이가 콜롬비아대학에 재직할 당시 듀이 밑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하였으며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강의하였다. 따라서 피셔가 우리나라 교육계에 듀이의 사상을 전파함으로 지식인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은 피셔와의 관계로 인해

듀이의 철학에 기초를 둔 누리과정은 절대자를 부인하는 교육과정이고, 진화론에 근거를 두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입증된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이에 반해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창조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하나님 중심 교육과정이 되어야 하며,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콜롬비아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듀이 밑에서 공부하게 된다. 1929년에는 오천석이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듀이의 강의를 직접적으로 수강하게 된다. 듀이가 은퇴한 후에는 듀이의 뒤를 이은 킬패트릭(William H. Kilpatrick)교수에게 김마리아, 김애마, 김필레, 김활란, 서은숙 등이 강의를 들었다. 이상의 여성들은 모두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나 석사학위 내지는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학위 수여 이후에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교수나 교사로 후학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이들의 콜롬비아에서의 수학은 듀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또한 이들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듀이의 철학에 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오천석은 보성전문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듀이의 사상을 전했다. 또한 오천석은 1934년 11

월 17일부터 28일까지 8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듀이의 교육철학에 기초한 아동중심사상이 유치원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일반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전하면서 그 당시의 유치원 폐지론에 반박함으로써 공적으로 언론을 통해 듀이의 교육철학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광복 이전 초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일제의 영향 하에서 프뢰벨의 영향을 받았지만, 후에는 브라운 리의 유치원 설립과 교육, 이화유치사범과의 운영, 구한말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이 새로운 현대식 교육을 요구하였고 이 때,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한 듀이 철학의 유입, 당시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에서의 듀이철학에 대한 수강과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콜롬비아대학으로의 유학과 귀국 이후의 활약 등이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광복 이후의 유치원 교육과정

광복 이후 5세 누리과정이 제정되기까지 7차에 걸친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과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유치원 교육과정 제 1차부터 7차에 걸쳐 아동의 활동, 흥미, 경험, 생활, 문제해결능력, 개성의 존중, 민주사회시민 등이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 가운데 유치원 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목표, 그리고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주요 개념은 아동중심교육 철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진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교실에서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광복 이후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듀이의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듀이철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1950년대의 듀이사상의 영향은 미국의 교육사절단의 교육적 활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



교육사절단은 전란으로 황폐화된 한국 교육의 재건을 돕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교육원조의 일환으로 3차에 걸쳐 파견되었으며 교원재교육, 교원 양성교육, 교육연구활동, 교육과정 등에 직, 간접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특히 1차 교육사절단은 1952년 9월에 7명이 내한하여 1953년 6월까지 700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원을 지도하였으며 교육철학, 교육행정학, 정신위생 등의 다양한 분야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진보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누리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누리과정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는 것은 듀이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듀이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사고는 반성적 사고에 의해 습득된다고 주장한다. 반성적 사고에서는 실험에 의해 검증된 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 과학적 실험에 의해 경험된 것만이 진리인 것이다. 듀이는 인본주의 선언 II에서 초자연적인 것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이상학적 차원은 경험적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실험할 수 없으므로 알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형이상학적 수준에 대한 믿음은 거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경험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영원불변의 진리와 가치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절대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듀이의 철학에 기초를 둔 누리과정은 절대자를 부인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듀이의 철학에 근거를 둔 누리과정은 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며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누락시키고 전인교육이라고 표방하고 있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입증된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이에 반해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창조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 중심 교육과정이 되어야 하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

하게 여기고,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교육과정의 차이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기독교인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동안 받은 교육이 인본주의 교육이었으니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교육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인 교사로서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을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는 어려움과 수고를 감당할 것인가는 기독교인 교사들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누리과정의 운영에 대한 비판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교사들의 인식이 깨어나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찾는 법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광복 이전과 이후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정희영의 저서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누리과정의 재구성」에서 밝혀졌음.



글 | 정희영

현재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며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사회복지대학원장, 상담대학원장, 그리고 부속유치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기독교학문학회장,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장을 역임하였다.

#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기독교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

박상호 (단원고등학교 영어교사)



청소년들에게 학교적응은 중요한 과업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최근에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간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 효과에 대하여 논문을 썼다. 그리고 이 글은 논문에 대한 요약이지만, 구체적인 출처는 생략하고 문맥의 흐름을 위해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지적이고 신체적인 면에서 특별한 장애가 없는데도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

고 수업 준비를 하지 않으며,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산만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화장을 하거나 책이나 연습장에 그림을 그리고 낙서하는 학생들이 많고, 교사들이 주의를 줘도 아랑곳없이 엎드려 잠을 자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점점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교실에 앉아 있거나, 의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처럼 아이의 행동이 부정적이고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고, 불쾌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일반계 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학교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개 학습 부진이나 행동 장애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2016년 학교 부적응, 가정 사정,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1만 3천641명으로 재적 학생의 0.87%에 이르며, 학교 폭력, 선도 조치,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포함하면 위기 학생 수는 더 많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학업 중단 숙려제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해 대안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적응은 청소년들의 개인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지만,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는 힘겨운 존재일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의 저자인 파커파머조차도 수도자처럼 조용히 있는 학생으로 인해 자신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감을 느끼거나 토론을 망쳐버리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갈등을 다루는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고민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수업 부적응, 학교 부적응은 청소년들에게뿐 아니라 교사들에게 힘든 상황이다. 기독교교육이 이와 같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학교적응의 문제는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 학교적응은 분명 중요한 문제이다. 특

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적응 중 수업 적응은 더욱 그렇다. 학업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인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이용자의 25.4%는 학업과 진로 문제로 센터를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의 고교 생활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시험 점수에 얽매이게 되고, 성적 수준에 관계없이 객관적, 주관적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게 된다. 이러한 좌절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학업성적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의 문제는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더욱 심해진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경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해진다. 학업은 분명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이자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학교에서 겪는 학습의 어려움은 개인에게나 가족에게 큰 스트레스다.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적된 학습의 어려움은 학업 장면에서 청소년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필자는 청소년들이 발달 단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주목하였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학업 상황에서 어떤 청소년들은 무기력을 학습하고, 어떤 이들은 더욱 노력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또한 성적에 상관없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자아탄력성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높은 위험 환경,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신앙이 무기력이나 학교적응에 실제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학생들은 신앙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의 종교 활동과 영적 성숙

종교 대처(religious coping)란  
스트레스나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으로,  
종교정향과 함께 스트레스, 불행한 사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주요 삶의 문제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도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특히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지 못한 안타까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양적, 질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신앙 발달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은 자명하다. 신앙 발달이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믿고, 생활하는 신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영적 변화 과정을 의미하는데,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종교적 가르침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하거나 부모의 종교적 신념을 자신이 유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급격한 발달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종교적 의심, 교회학교와 기독교학교에서의 여러 경험들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가톨릭 교회의 청소년들의 교회 출석이 줄어들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개신교도 상황은 비슷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각 교회마다 어린이 및 청소년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약 45-50% 교회학교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가톨릭에서의 분석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서'라고 한다. 개신교에서도 청소년을 포함해서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세대'로 '가나안 신자'(안 나가'를 거꾸로 읽은 것), '노마드 신자'(유목민처럼 교회를 옮겨다니는 이들), '스타벅스 신자'(교회 근처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보는 이들)라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교회에 대한 거부는 신앙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표준을 강요하는 기성 세대에 대한 거부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하여 그들은 교회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어서 그럴수도 있다. 이외에도 최근 학생들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거나 성경과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낀다. 즉 오늘날 청소년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교회가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표준을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신앙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신앙과 관련하여 종교 정향과 종교 대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종교적 의문, 회의, 걱정에 대하여 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찾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교정향은 종교 성향, 종교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종교적 방향을 의미한다. 개인의 종교성은 '개인들이 종교적인 정도' 또는 '종교적 성향의 정도'로 개인의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신념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또 종교마다 서로 다른 조직, 관



습, 관행, 신념 구조 등을 반영한다. 그리고 종교 대처(religious coping)란 스트레스나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으로, 종교정향과 함께 스트레스, 불행한 사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주요 삶의 문제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종교 대처는 3가지로 분류하는데, 자기주도형(self-direction style)은 신이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신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유형이며, 책임 전가형(deferring style)은 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고 문제 해결 책임을 신에게 맡기고 자신은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유형이고, 마지막으로 공협형(collaborative style)은 문제 해결의 책임이 본인과 신에게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에 처했을 때 신의 뜻을 찾으며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유형이다. 따라서 개인의 종교정향, 종교 대처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학습된 무기력,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종교정향과 종교 대처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으며 연구의 양도 많지 않다. 따라서 종교정향과 종교 대처는 앞으로 학교적응, 자아탄력성과 함께 기독교교육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필자는 기독교 신앙, 종교 활동,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학교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을 받은 기독교 고등학교의 청소년들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 학습된 무기력, 학교적응 간 경로상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기독교 고등학교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독교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종교 활동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영적 성숙과 종교 성향이 청

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독교학교의 존재 목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기독교학교에 있는 정기적인 채플, 학급 경건회, 기도회, 절기 예배, 행사 관련 예배 의식 등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지, 자아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두 학교 간 차이가 없는 것은 해당 학년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입학 때도 그러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정체감과 가치관 형성에 있어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신앙인은 신앙 성숙을 위해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한데,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청소년들의 신앙문제에 있어서도 또래들과 그룹을 형성하여 나눔을 하는 교수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의미있는 타자'로서의 기독교학교의 교사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교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글 | 박상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육학석사, 백석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박사, 현재 단원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중에 있다.

#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김성수 (전 고신대학교 총장)



오늘날 기독교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외적으로는 국가의 통제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세속적 문화와 이념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구성원의 빈약한 세계관적 기초, 교권의 위협, 그리고 빈약한 시설과 재정 문제 등의 시련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양성과 특성화를 강조하는 교육정책도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기독교대학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고

등교육 발전을 위한 국가의 재정재원이 국가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양성에 우선적일 수밖에 없으니 신학과 인문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독교대학은 연구 프로젝트 수주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기독교대학이 진정한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다양한 유형의 기독교대학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독교대학들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 개화기에 선교사들이 설립할 당시에는 우수한 기독교대학이었지만 지금은 기독교대학의 특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유명 사립대학들, 아직도 교목실과 채플, 종교적 특강, 교양성경 과목의 개설 등을 통해 설립자의 신앙과 설립정신을 계승하고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독교대학들, 그리고 목회자 양성의 신학교로 설립되어 점차 종합대학교로 발전했지만 아직도 신학적 특성이 강하여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신학대학의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기독교대학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보다는, 대학종합평가에서 보다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를 홍보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 충족에 급급해 있다. 일부 지방 기독교대학의 경우는 정원미달사태를 막기 위해 몇 번에 걸쳐 추가로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 학생정원은 겨우 충족시켰지만 이들에게 전공과목을 강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교수들의 토로가 들리고 있다. 기독교계를 향해 기독교대학임을 표방하는 일부 대학들의 홍보도 기독교인 학생들을 유치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학생 유치를 위한 교육지책으로 기독교대학임을 홍보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이런 유형의 기독교대학들은 일반 고등학교를 상대로 입학홍보를 할 때 채플이나 기독교적 교양과목개설과 같은 기독교대학의 부가적인 특성은 절대로 홍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독교고등교육을 향한 한 가닥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대다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고민보다

대학종합평가에서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를 홍보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국가로부터 더 많은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 충족에 급급해 있다.

교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교육과 학문 운동을 통해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하려는 교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소수의 헌신된 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기독교대학들과 심지어는 기독교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세속대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바람직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기독교대학은 단순히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거나, 그러한 학과목에 기독교적인 가치나 활동을 추가하는 대학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학문의 종교적 뿌리를 드러내고 학문 자체를 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가 학습 분위기에 단순히 스며드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 학문을 형성하는 종교적 뿌리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모든 강의실이 종교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물



학, 심리학, 교육학, 역사학의 가르침을 종교과목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학문의 내적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의 본질과 구조를 지키면서 학문 자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교육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소위 "중립적"인 사실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단순히 추가하거나,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는 일보다는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학문을 보는 학자"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 활동에 종사하는 학자"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좋아한다.

#### 구성원의 헌신이 정체성 유지의 관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의 비전과 가치를 향한 구성원들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

상적인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전공분야를 기독교적 신앙과 관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요컨대, 기독교대학에 봉직하는 교수들은 경건성과 학문적 탁월성을 동시에 지니고 기독교적 교육과 학문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이 기독교인이면서 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학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교수진이 심오하게 헌신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기독교대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교수 채용에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학의 학생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실한 면학과 신앙적, 인격적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공부과정을 단순히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기독교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하신 일생의 과제를 찾도록 힘쓰며 그 일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직원 역시 자신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그분의 나라가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확장되어 감을 확신하면서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이사회는 반드시 기독교세계관에 충실해 있는 사람들도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학교의 기본적인 종교적 방향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교수와 행정요원들을 선발하며, 교육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들을 공급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온실인가, 훈련장인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유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대학을 온실처럼 생각한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와 이단으로부터 언약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독교대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기독교대학의 일차적 과업은 기독교신앙과 교리를 주입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반대나 비판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본질상 종교적이며 교육과 학문 활동도 종교적이라면, 기독교적 교육과 학문만이 유일하게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형태의 교육과 학문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이 직면하는 문제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을 수용하

여 교육과 학문의 기초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즉 신앙과 학문은 언제나 통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기독교대학이 제기해야 하는 질문은 어떠한 신앙을 기초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와 학문' 또는 '신앙과 학문'이 아니라 종교 대 종교, 과학 대 과학, 신앙 대 신앙, 학문 대 학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이퍼(A. Kuyper)는 두 종류의 진리와 두 종류의 학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중생자와 비중생자)과 두 종류의 원리(하나님중심원리와 인간중심원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진리는 하나이며, 따라서 갈등은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상이한 원리에 있다고 보았다.

카이퍼에 의하면 기독교는 항상 갈등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현재 격렬하며 앞으로도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두 원리의 갈등이다. 즉 인간 중심적 원리와 하나님 중심적 원리,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지혜와 신적 계시의 갈등이다. 이 갈등은 대학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자는 이 갈등을 부인하거나 평가절하, 또는 우회해 갈려고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세상에 대하여 보다 더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잘못된 원리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론적인 대결을 준비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 슬로건 보다는 실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실천적인 삶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독교대학의 의학교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독교세계관과 가치관에 입각해서 의료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의료인 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의료 선교사 양성을 정체성으로 표방하기에 앞서 생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의료인, 의료쓰레기문제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대학을  
온실처럼 생각한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와 이단으로부터  
언약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독교대학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기독교대학의 일차적 과업은  
기독교신앙과 교리를 주입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반대나 비판이 아  
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한 청지기적 소명의식에서 접근할 줄 아는 의료인,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씨를 찬양할 줄 알  
며 자신이 탐구한 의학적 전문 지식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할 줄 아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의사의  
양성이 기독교대학의 의학교육이 성취해야 할 교육  
목표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학문영역에도 공히 적용  
되어야 만하는 본질적 원리이다.

기독교대학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신앙이라는 확고한 기초를 상실해 버  
리거나 아니면 학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어떠한 경우  
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대학이라고 부르는 어

렵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을 실천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삶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신앙은 주일 하루 또는 인간 삶의 어느 한 영  
역에만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방향 지우며 동기 지우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이러한 기독교적 신앙을 확고한  
기초로 삼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교육  
과 학문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인적, 물적 자원 면에서 많은 것을 필요  
로 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다른 어떠한 대학들보다  
도 더 낫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좋은 시  
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  
대학의 모습을 상기할 때 항상 열악한 시설 환경 속  
에서 협의적이고 도그마적인 의미의 경건을 강조하  
는 소리만이 연상되어져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실천적으로 증  
거하면서 교육과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신앙공  
동체가 되어야 한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7/15일자 발행)



글 | 김성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남아공화국 포츨  
스트롬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1977년부터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총장을 역임하였고, 기독교세계관학술 동역회 이  
사로 봉사했다. 지금은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Evangelia University 부총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WORLDVIEW

# COLUMN

---

## 연재칼럼

[연재칼럼 1] 교육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연재칼럼 2] 어떻게 교육은 우리 운명의 일부가 되는가 (이정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19)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니 (김헌수)

# 교육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 책갈피를 선보이며

이번 호부터 주제별 북리뷰를 맡은 송인규입니다. 칼럼의 명칭을 책갈피로 잡았습니다. 책갈피는 책의 어느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고안물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책에 관한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일부러 이의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주제의 선택은 임의적이지 않고 해당 호 월드뷰의 주제를 그대로 좇아갑니다.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3-4권 정도의 책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권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로 한글 도서 [한국인의 저술이거나 번역서]를 소개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 번역이 되지 않은 영서를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책의 소개는 대체로 책의 내용을 알리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어떤 책은 상세하게 소개될 것이고, 어떤 책은 간략한 취급만 받을 것입니다. 어떤 책은 북리뷰어가 상당히 꼼꼼히 살핀 것일 수도 있고, 일부 내용만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단지 곁핥기식으로 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리뷰어와 더불어 연관 도서들의 갈피를 헤집어 봅시다!



교육의 주제는 워낙 방대해 어차피 선택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 지침,” “교육과정,” “학벌 현상”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 일반적 지침

여기에서 “일반적 지침”이라 함은 교육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한 안내서라는 뜻이다. 먼저, 파커 팔머 (Parker J. Palmer, 1939~ )가 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종태 옮김, 한국 IVP, 2006년 출간)부터 시작하자. 이 책의 원 제목은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알기: 영적 여정으로서의 교육」(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으로서, 이미 제목 가운데 교육, 영성, 공동체(“우리”), 인격적 관계(“알고 알려지고”) 등의 중요한 사안이 줄줄이 엮여 있다. 팔머 — 실은 “파머”가 더 낫지 않은가 하는데 — 는 웨이커 전통의 영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공동체적 · 상호 연관적 비전을 밝히 드러내면서, 함께 이 길을 걷자고 설득력 있게 약속을 청한다.

이 책자의 앞 부분(pp. 39-40)에서 저자는 도합 7장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기술한다. 1-4장은 자신의 교육관 수립에 기초가 되는 토대적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1장은 지식의 기원론, 2장은 객관주의적 인식 이론, 3장은 관습적 교수 방법, 4장은 진리의 인격적 · 공동체적 개념을 말한다. “가르침이란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이라는 기치 아래, 5장은 교사 편에서의 배움을 위한 공간 창조에 대해, 6장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진리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는 방도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 7장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행하는 데 필요한 영성 훈련이 어때야 하는지 설명한다.

만일 좋은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자기 성찰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파머의 책은 분명 좋은 책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도 여기저기 줄을 치면서 읽었고, 이번에도 다시금 내용을 살피면서 불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

---

만일 좋은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자기 성찰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파머의 책은  
분명 좋은 책임에 틀림이 없다.

---

다. 내가 실시한 가르침 (특히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은 그가 문제로 지적한 바와 상당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해로 반 브루멜른(Harro Van Brummelen, 1942-2014)의 저술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안종희 옮김, 한국 IVP, 2014년 출간)이다. 반 브루멜른은 교사[수학 과목], 교장, 교육과정 조정관을 지냈고, 후에는 교육과정 영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특히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및 기독교적 교육과정의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전자에 해당하는 현 책자는 1988년에 1판, 1998년에 2판이 나왔고, 현재의 번역본은 2009년에 간행된 3판에 기초한 것이다.

이 책은 기독교 학교나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책의 목차만 훑어 보아도 이 책자가 의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 1부 학교 교육과 가르침

1장 학교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인가?

2장 기독교적인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 2부 학습 계획

3장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4장 의미 있는 학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5장 학습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3부 학습 공동체 만들기

6장 학급 공동체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7장 다양한 학습자를 어떻게 포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

8장 서로 돕는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 4부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9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공립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책자의 내용을 촉발시킨 삶의 자리가 캐나다라는 점을 유념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교사들 역시 이 책으로부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교육과정(curriculum)이 교육의 전부라고 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실제상으로는 동의하지 않을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교육의 모든 것 — 교육의 본질적 성격, 목표, 학습 계획, 교수 방법, 평가 등 — 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중요한 교육과정의 영역에 있어서 두 권의 돋보이는 책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한국인의 저술이고 또 한 권은 번역판이다. 하나는 기독교 신학과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를 둔 학교 교육에 집중한다. 하나는 신학교나 기독교 교육학의 맥락에 적합하고 나머지 하나는 중·고등학교의 교육 현장에 안성맞춤이다. 하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목회자와 교육 목사에게 의미심장할 것이고, 또 하나는 크리스천 교사들과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다.

전자는 박상진 지음,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년 간)이고, 후자는 다시금 해로 반 브루멜른 지음, 이부형 옮김,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한국 IVP, 2006년 간) [원본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A Biblical Path (Colorado Springs, CO: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2002)]이다.

「기독교 교육과정 탐구」는 기독교 교육이 일반 교육과 달리 신앙(faith)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신앙을 “하나님 알기”(knowing God)로 규정함으로써 논의를 출발한다 [제 1 부]. 신앙이 곧 “하나님을 앎”이라는 것은 먼저 칼빈에게서 선명히 드러나고, 이어 칼 바르트, 에밀 브루너, 리처드 니버 등의 신정통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에게서도 확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알기”에서 앎은 어떤 인식론적 특성을 갖는가? 저자는 전술한 네 명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비교·종합해 볼 때 거기에서 인격적 앎(personal knowing), 공동체적 앎(communal knowing), 상상적 앎(imaginative knowing), 참여적 앎(participatory knowing)의 네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이 책자는 인식론적 탐구 [제 2 부]에 크게 역점을 둔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하나님 앎과 기독교적 교육과정의 기초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먼저 저자는 현대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인식론의 흐름을 데카르트, 로크, 칸트에게서 찾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1) 객관주의적(objectivistic)이고, 2) 개인주의적(individualistic)이며, 3) 상상 경시적이

고, 4) 관객 조망적(spectator-like)이다. 이러한 근대 인식론은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던적 인식론으로부터 직격탄을 맞고야 말았으니, 그 이유는 새로운 인식론의 특징이 인격적, 공동체적, 상상 의존적, 참여적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런 설명은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i, 1891-1976), 마크 존슨(Mark Johnson, 1949- ), 더글러스 슬로언(Douglas Sloan)이 내세운 바 새로운 인식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중에서도 단연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것은 폴라니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론의 변화에 발을 맞춘 교육 이론가는 누구일까? 저자는 파커 파머(Parker J. Palmer), 제임스 로더(James Loder), 그리고 마리아 해리스(Maria Harris) 3인을 대표적 예로 든다.

저자는 자신의 모델[제 3 부]을 제시하기에 앞서 두 가지 선행 작업을 시도한다. 우선, 소극적 작업으로서 전통적 커리큘럼의 사상적 원조인 타이러(Ralph W. Tyler, 1902-1994)식 커리큘럼 모델을 비판한다. 그리고 나서, 저자 자신의 모델에서 핵심 개념이 되는 “성육신적 상상”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드디어 성육신 커리큘럼 모델의 전모를 다음과 같이 밝힐 수 있게 되었다.

- 1) 목적: 하나님 알기
- 2) 내용: 하나님의 형상
- 3) 범위: 예배, 선포, 가르침, 교제, 봉사
- 4) 장: 가정, 교회, 학교 등
- 5) 작성의 원리: 인격적, 공동체적, 상상적, 참여적
- 6) 표현 양식: 육화된 이미지
- 7) 특성들: 타이러식 커리큘럼 모델에 대한 대안적 특성들

저자는 기독교적 커리큘럼의 수립에 있어서 신학과 유관 학문 사이, 이론과 현장 사이의 균형 및 통합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다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하나님 알기”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과연 그런 것에 동의하고 또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또 오늘날 한국인들은 근대적 과정조차 제대로 겪지 않았으므로, 포스트모던적 응수를 마땅한 해법으로 여기는 서양식 접근이 과연 한국의 실정에 얼마나 적실할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반 브루멜른의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은 리뷰어가 보기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총론에 해당하는 1-3장의 내용인데, 교육 과정의 의미와 목적(1장), 교육과정의 네 가지 유형(2장),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과정(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부분인 4-8장은 각 과목의 수업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미에서 적용에 해당한다. 그것은 지식과 교육과정(4장), 학습과 교육과정(5장), 교육과정의 기획(6장), 수업 단원 기획(7장), 교육과정의 과목(8장)이다. 마지막 부분인 9장은 교육과정 리더십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반 브루멜른의 책은 이론과 실천이 튼실하고 적실하게 연계되어 있고, 실제적 학교 수업의 경험이 배어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한 두 가지로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 환경은 복미 상황과 많이 다르고 특히 문화적·사회적 성격에 있어 적잖이 차이가 나므로, 항시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의 원리에 비추어 생각하는 버릇을 길러야 할 것이다.

### 학벌 현상

이제 우리는 한국인 본연의 해 오랜 고질과 맞닥뜨렸다. 한국 사회는 학벌이라는 병리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집요한 철학적 작업을 벌인 것이 김상봉, 「학벌 사회: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한길사, 2004년 간행)가 아닌가 한다. 리뷰

내가 일선의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교육가이고,  
또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괴물 같은 교육 현실을 놓고  
함께 끙끙거리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이기에  
일반인으로서나 기독교인으로서나  
이 주제를 피할 길이 없다.

어 역시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 했기 때문에 무어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책이 한국 사회의 학벌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 대안의 제시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예감만큼은 떨치기 힘들다고 하겠다. 이 책은 서론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저자는 “서로주체성”이라는 이념을 도입하여 사회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힘쓴다. 이것은 사회가 “우리”라는 공동주체임을 깨우치고, 학벌은 사회적 공동주체가 서로주체성을 파괴하고 왜곡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 생기는 병리 현상으로 해석한다. 이어서 펼쳐지는 6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력의 독점과 사회적 불평등
2. 학벌과 사회적 주체성의 문제
3. 학벌과 교육의 파탄
4. 학벌과 국가 경쟁력의 위기
5. 교육의 이념과 학교 평준화
6. 학벌 타파의 구체적 대안들

학벌 현상과 맞물려 있는 사회적 난제가 대학 입시에 대한 것이다. 기독교학고교육연구소 엮음,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예영커뮤니케이션, 2008년 간행)는 이에 대한 기독교적 반응이다. 이 책자에서 박상진, 김희권, 김창환, 강영택 등 4인의 저자는 입시 문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고 있다. 이것이 대학 입시에 대한 해결책이나 해소 방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광범위한 논의의 출발만큼은 충분히 도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교육 — 내가 일선의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교육가이고, 또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다(혹은 부모가 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괴물 같은 교육 현실을 앞에 놓고 함께 끙끙거리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나 기독교인으로서나 이 주제를 피할 길이 없다.



글 | 송인규

한국기독교학생회(NVF)의 총무로 역임하였으며,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



# 어떻게 교육은 우리 운명의 일부가 되는가?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 자각한다는 것

“삶이란 총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 미국의 연방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Oliver Wendell Holmes)는 1906년 7월 23일 친구인 역사학자 루이스 아인스타인(Lewis Einstein)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홈스의 지적은 그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적절한 것

같다. 요즘 우리는 인생을 좁게 본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을 큰 그림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신은 인간이 감당키 어려운 만큼이나 긴 시간을 주었다. 그럼에도 시간에 쫓기듯 사는 것은 돈을 대가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가 박민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끈다. 벤 카슨(Ben Carson)은 보수논객

교육의 가치는 아름답다.  
기회는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찾아온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을 때에만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잠재력보단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한다.

한 번의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실수를 배울 기회는 전혀 없다.

이자 유명한 신경외과 전문의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 첫 흑인각료로 주택장관으로 있다. 가난에 찌들려 살던 그에게 결정적인 한방은 교육이었다. 그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었다. 누구나 이것을 처음엔 집에서, 적령기가 되면 학교에서 배운다. 9년간의 의무교육을 마치면 학교 밖 세상에서 배운다. 실제 우리 삶은 오픈 북 시험과도 같다. 대개는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들과 씨름해야 하기에, 선행학습은 종종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된다.

철이 일찍 드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은 삶이 힘겨울 때 떠오르기 마련이다. 카슨이 한때 빛나간 것도 그 때문이다. 미혼모였던 엄마는 생계를 꾸리느라 분주했다. 넘쳐나는 시간을 때울 방법은 길거리 밖에 없었다. 인생의 출발점은 다들 다르다. 카슨은 뒤쳐진 인생이었다. 후발주자가 자신의 열정과 능력에 맞는 직

업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엔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은 교육뿐이다.

###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한방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들 간에도 차이가 난다.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데도 어떤 이는 박사를 따기도 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한끝이 다르다. 교육의 힘을 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도전한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대부분 자수성가하였다. 이들은 세상 모든 CEO가 묻는 질문의 해답을 알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가로 승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교육은 바로 후자의 폭을 넓혀준다.

충고는 아무리 유익해도 귀에 거슬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화를 활용한다. 통행이 잦은 지하철역 근처에 노숙자가 있었다. 그는 “저는 장애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쓴 팻말을 들고 앉았지만, 빈 강통엔 동전 한 닢뿐이다. 그런데 한 신사가 그 팻말 뒤편에 무언가를 적은 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돌려놓고서 떠났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동전이나 지폐를 던져주기 시작했다. 노숙자는 고마움과 함께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거기에는 짤막한 한 구절만 적혀 있었다.

봄은 왔지만 저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비유는 공감의 폭을 넓혀준다. 때로는 이성보다 감성이 더 큰 공감을 불러온다. 이 공감이 교육이 하는 역할이다.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은 가장 빠르게 배운다. 교육은 자업자득이라는 역사성을 가지

고 있다. 아이디어 창출에서 양이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창조란 이미 알려져 있는 수많은 정보를 의미 있게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것이고, 교육은 흩어져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결집하면서 역량을 키우는 첫 걸음이다. 이것을 문학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낯설게 만들기'가 된다. 낯선 것은 익숙하게 익숙한 것은 낯설게 만들 때, 새로운 관점이 떠오른다.

결정적인 한 방은 간절할 때 나타난다. 절박해지면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하기만 해도 독창성이 나타난다. 스티브 잡스가 그 예이다. 대학 자퇴 후 서예수업을 청강한 덕분에, 잡스는 컴퓨터에 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키는 영감을 얻었다. 빌 게이츠도 유사하다. 그가 청소년 시절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탐독했다. 이때의 경험은 게이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피스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데 영향을 미쳤다. 게이츠에게 결정적인 한방은 백과사전이었다.

벤 카슨에게도 이런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다. 의대 시절 카슨은 성실한 학생이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들이파는 친구들과 달리 카슨은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도 공부했다. 그런 그를 친구들은 놀리곤 했다. 의대 졸업 후 수련의 과정을 밟을 때, 하루는 과장 선생님이 한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물었다. 함께 회진을 돌던 레지던트들 가운데 그 병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사소한 질병이었기 때문이다. 카슨은 그 질병의 징후와 처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그에게 결정적인 한 방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제였다.

### 빈민들과 함께 해 온 의사

우리는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간다. 하지만 소수는 다른 선택을 하곤 한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 나오는 두 갈래 길은 선택이 주는 의미를 설

명한다. 미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William Carlos Williams)란 이름은 낯설 것이다. 20세기 미국의 시인이다. 그는 에즈라 파운드와는 평생 친구였고, 시를 “관념이 아니라 사물로 말하라”(say it, no ideas but in things)는 그의 모토였다. 그는 사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 느낌으로 시를 썼고, 일상의 아름다움을 쉬운 시구로 표현하려고 했다. 지금은 그를 시인으로 기억하지만 그의 생업은 의술이었다. 그는 환자가 끊긴 짧은 시간에 처방전 뒤에 시를 썼다.

그의 시집 중 두 권이 유명하다. 풀리처상을 받은 『브뢰겔의 그림, 기타』와 『패터슨』이다. 시집 제목인 패터슨(Paterson)은 지명이다. 뉴저지주의 작은 도시다. 14만 명쯤 산다. 이곳은 미국 최초의 공장들 중 하나가 세워진 곳이었다. 해외 이민자들이 미국시민권을 따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시인은 가난한 이민자들을 진료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치료비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당시 시인은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한 채 가난한 이민자들을 돌본다고 조롱당하는 투사였다. 시집 『패터슨』을 보면 그가 보고 듣고 기억하고 기록해둔 것을 만날 수 있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이란 시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가난한 무정부주의,  
새로 지은 벽돌 공동주택 사이에  
옴폭 들어가 있는 오래된 노란 목조 주택

혹은 이파리가 잔뜩 매달린  
참나무 가지들이 보이는  
주철 발코니.  
온갖 궁핍과 습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뻗  
아이들의 웃과 잘 어울린다.



이 답장 없는 시대에  
 거의 둘러칠 것도 없는  
 목재와 철재 담장들, 지붕들, 굴뚝들  
 스웨터와 검은 중절모 차림으로  
 인도를 쓸고 있는 노인

### 고등교육과 그것의 배반

“가장 원대한 비현실을 볼드는 사람만이 가장 원대한 현실을 창조해낼 것이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행간』의 서문에서 한 말이다. 아감벤 외에도 올리버 웬델 홈스, 루이스 아인스타인, 벤 카슨,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 모두 교육에 관심이 있었다. 우리 역시 교육에 관심이 많다. 수능시험과 입시요강은 국민적 관심사이다. 그래서 대학별 인기학과를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요즘 대세는 의예과이다. 전문대도 취업에 유리한 학

과들에 학생들이 몰린다. 인생엔 리허설이 없고 두 번째 기회란 주어지지 않기에, 한 번의 선택은 더욱 중요하다.

인기학과와 서열은 취업률이 결정한다. 요즘 대학생들은 전공 선택에 자유롭지 못하다. 인문학 전공자가 취업문을 뚫으려 공과대 과목을 수강한다. 졸업 후 취직 때문이다.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전공은 적폐 대상으로 불린다. 오래된 영화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가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자신만의 신념이 없다. 교육의 가치는 아름답다. 기회는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찾아온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을 때에만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잠재력보단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한다. 한 번의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실수를 배울 기회는 전혀 없다.

크리스천 작가 짐 월리스(Jim Wallis)의 책 『하나님의 정치』에 보면 챕터 별 제목들이 독특하다. 15장의 제



목은 '이사야의 연단'이고 부제목은 '예산은 도덕적 문서다'이다. 예산은 한 가족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가장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영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과 똑똑한 사람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삶이 아니라 관념으로만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설명한다.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집이 가난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해서도 학비를 벌기 위해 강의실을 청소했다. 함께 수업을 들던 남학생 중 하나가 여학생을 놀리고 성희롱을 했다. 두 사람은 윤리학 과목을 두 번씩이나 함께 수강했다. 그 남학생은 매번 뛰어난 성적으로 A+를 받았다. 여학생은 끝내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했다. 그녀가 자퇴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책

소말리아의 유목인 소녀가 있었다. 열네살 때 강제결혼을 피해 탈출했다. 무학이었던 소녀가 세계적인 슈퍼모델, 유엔 인권대사가 되었다. 그녀를 바꾼 것은 교육이었다. 와리스 다리(Waris Dirie)는 『사막의 꽃』에서 감동적인 삶을 토해낸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지 못한 인생은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책으로 남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한 번도 읽힌 적이 없는 책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삐를 풀고 싶은 한 때의 야생마가 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는 많은 것을 바꾸

어 놓는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흑인 죄수는 이렇게 되된다. "처음엔 싫지만, 차츰 익숙해지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우리의 삶은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죄수와 참 많이 닮았다. 성숙은 불완전한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반대일 때가 많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은 효율만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시, 로맨스, 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우린 바로 인간이니까...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려고 애쓴다. 그래서 명문대 진학과 취직에 목숨을 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키팅 선생님은 '말과 언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야." 교육은 어떤 아이디어든, 심지어 바보 같아 보이는 생각도 잠재적인 가능성의 씨앗이 숨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진짜 시는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한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만큼 시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은 적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긴다.



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디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사오니

김현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제시하지만, 대체로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것들이다. 물론 순전히 자기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성경 구절이나 신앙고백서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라도 그 내용은 결국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의하여 해석되고 구현된 교회이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이해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서로 원만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이어지는 말은 “믿사옵나이다”이다. 즉 교회를 믿음의 항목으로서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주일 54문에서도 이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 보통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아는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을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 것이다. 교회가 드러내는 모습이나 어떤 현상, 우리의 경험 같은 것을 근거로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안다’고 이야기하지, ‘믿는다’는 말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교회에 대한 우리 생각의 출발점부터 바꾸어 놓는다.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평가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삼위 하나님의 경영이 이

루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믿고 나오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 교회를 믿고 고백함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근거는 첫째, 교회가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삼위 하나님은 추상적인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구원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교회에서 알게 되는 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최초로 설교된  
성신교회 (하이델베르크)

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가 각기 구별되어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그분의 구원 사역이 나타나는 현장인 교회에 대하여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

한 믿음으로 교회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고백한다. 자신의 경험이나 주위에서 보는 것으로 교회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간다.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으로 삼으신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의 믿음은 근본적인 데서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영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떠나서는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肢體)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54문은 교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 문답을 살펴보겠다.

### 누가 -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자,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마 16:16, 18).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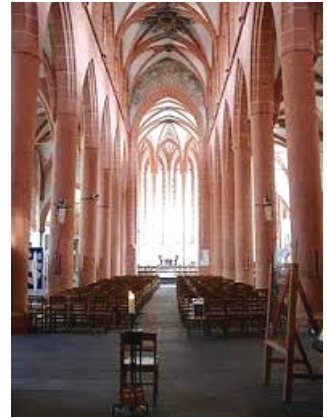
고 구체적으로 명하시고는, 주님께서 세상 끝 날까지 그들과 함께하시면서 친히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을 약속하셨다(마 28:18-20).

과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로부터 성신을 받아서 보내심으로써 오순절에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스도

께서 성신으로써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세우시는 것이므로, 이러한 교회는 ‘그의 몸’이라 불린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 ‘성신의 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 언제 -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중’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배를 교회의 핵심으로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처음부터 교회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태초에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것도 교회였다. 수가 적었지만 참된 믿음이 있었던 노아의 가족도 교회였다. 아브라함의 가족도 교회였고 출애굽하여 시내 산에 서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교회였다(행 8:38). 구약의 교회는 시온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성신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고 선언하셨다(요 4:23-24).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성신을 보내어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다. 비록 교회가 외적으로 심히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라도 땅 위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절). 마치



성신교회의 내부

막 날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이르기까지 성신과 말씀으로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일은 계속될 것이다.

### 어디서 -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천사들이나 다른 피조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부르시되 '모든' 인류 가운데서 부르셨다. 이것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의 뜻이다. 족장 시대의 교회는 가족이었고,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구약의 교회가 섰지만, 오순절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다. 장차 마지막 날에는 수많은 방언과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송할 것이고, 그날에는 교회의 보편성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계 5:9).

### 무엇을 - 영생을 위해 선택된 교회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선택'을 교회에 적용한다.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에 영생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에서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다(요 10:28-29). 비록 교회에 여전히 부족함과 결핍이 있고 죄악적인 것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교회를 거룩하게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다)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라도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전 1:2. 참조. 엡 1:4).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족속'이라고 하신다(출 19:5-6; 뱀전 2:9).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성신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고전 3:16-17). 교회는 '영생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모임이고 주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여기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다)

### 어떻게 - 성신과 말씀에 의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54문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성신'을 함께 고백한다. 성신께서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신을 항상 함께 이야기한다. 말씀과 무관하게 성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말씀과 성신을 동일시하면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가 곧 신앙을 세워 주는 것인 양 오해함으로써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메마르게 된다. 그러나 성신께서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심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성신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 또한 성신께서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게 될 것이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롬 10:17). 즉, 믿음은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물론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낚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낚새"가 된다(고후 2:16). 이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비밀'이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작용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참된 믿음은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이다(21문).

교회의 통일은 이처럼 참된 믿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엡 4:13).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결코 교회의 통일성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 왜 - 자신을 위하여

교회는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엡 1:3-6)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만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보면 ‘선택’을 교회와 관련하여서 가르친다. 우리는 선택을 개인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어떤 개인이 선택을 받았는가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며, 해답이 없는 질문이다. 그러한 식의 질문은 항상 결정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성경에서 ‘선택’에 대한 구절을 보면 모두 ‘교회를 선택하신 일’에 관한 것들이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였고(출 19:5-6) 신약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이다(벧전 2:8-9). 선택을 교회와 관련하여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로 이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모임이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 모임임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임의적인 단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 했나 -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주님께서는 성신과 말씀을 쓰셔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을 쓰셔서 불러 모으시는 교회’는 구체적인 지역교회이다. 주님께서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친히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백화점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뒤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

도께서 피로 사서 모으신 주님의 기관이다. 주님께서 피로 사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힘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뜻이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주님의 심부름꾼일 뿐이고, 교회의 모든 힘은 주님께에서 나온다. 교회의 회원들이 정당한 각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봉사를 받으셔서 교회에 유효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교회가 자발적인 단체라면 회원들의 봉사에 의존하여 유지되겠지만, 교회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신을 통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러내며 회원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러면 하늘의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을 하실 것이다.

“교회를……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여 나가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을 암시한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때때로 사자의 입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들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딤후 4:17, 18). 또한 신자들은 말씀이 전파되는 지역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참조. 요 10:27-29).

### 실존적 고백 -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리할 것을 믿습니다.

54문의 두 번째 고백은 첫 번째 고백을 좀 더 개인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이 신학적인 진술이라면, 두 번째 문장은 실존적으로 외치는 것이다. 즉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그 안에 넣고서 고백하는 것이다. “지금 이 교회”라는 말을 보면 교회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이 교회를 가리키면서 자신이 이 교회의 지체임을 고백한다.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신성로마 제국의 변경에 있는 작은 회중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러한 큰 시각을 갖고서 담대하게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고백하였다. 그들은 숫자로 보더라도 로마교회에 비하여 턱없이 적었고, 루터교회에 비하여서도 적은 무리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일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발견하였다. 우리가 지금 회원으로 있는 이 교회는 지극히 작은 교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의 작은 교회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이다. 우리는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이며”라고 고백하면서 이 교회와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이다.

**보론 -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에 대하여**

사도신경에서는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이것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교회의 통일성·거룩함·보편성·사도성 등은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현실에 있는 ‘보이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속성이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설명은 현실적인 면에서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실의 모습을 근거로 한 이러한 생각은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첫 구절에 대하여서부터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현실의 모습을 근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믿고 고백해야 하는 대상이다. 비록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에 대하여 고백한다.

둘째,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날카롭게 양분하는 방식은, 멀게는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에, 가깝게는 현상계와 본질계에 대한 칸트의 관념론적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가 본질의 세계이고 현실은 그림자이며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

는데, 그러한 이교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교회를 질식시키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원론에 따라서 교회를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고, 또한 그 결과 현실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당연시하고 그냥 체념한 채 지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을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예도 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교회의 다형성’(pluriformity of church)를 주장하였다.



아브라함 카이퍼 (1837-1920)

그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본질의 세계에 있고, 이 세상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지역 교회, 기독교 학교, 기독교 정당, 기독교 저널리즘, 기독교 병원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세상에서부터 뒤로 물러서려는 재세례파의 은둔주의에서 벗어나서 신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지만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를 부분적인 것으로 놓고 기독교적 사회 활동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속화하기 쉽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에 사변적인 요소가 있음을 잘 지적한 사람은 클라스 스킨더(Klaas Schilder)이다. 그는 카이퍼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였다.

히말리아 산 중턱에 걸린 구름 때문에 산 위는 보이지 않고 구름 아래 부분만 보인다고 가정을 하자. 어떤 철학자가 산의 보이는 부분을 가리켜 초월적인 부분의 ‘현현’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산의 '일부'라고 대답을 하겠다.<sup>1</sup>

셋째, 역사적으로 보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요즈음에 사용되는 의미와는 다른 맥락에서 나왔다. 16세기 종교개혁 무렵에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자로 간주되었고 그 사회 역시 실제의 모습과 관계없이 기독교적인 사회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시대에는 교회의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칼빈 선생님은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즉 하나님은 아시지만 엘리야는 아직 볼 수 없었던 교회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쓴 것이다.<sup>2</sup> 따라서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약한' 교회였

지 천상에 있는 또 다른 완전한 실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칼빈 선생님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당시의 교회가 약



클라스 스킨더 (1890-1952)

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람으로서는 잘 볼 수 없고 또한 교회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로서는 한 지역 교회에 대하여서도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신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면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sup>3</sup>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서 말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끝으로, 교회에 대한 성경의 여러 표상들 중에서 특히 "하늘의 예루살렘"(히 12:22),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 4:26), "새 예루살렘"(계 3:12, 21:2)이라는 말은, '이 지역 교회는 그림자이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참된 원형의 교회'라는 식의 생각이 비성경적임을 바르게 지적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각 지역 교회가 곧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고대 교부 중의 한 사람인 이그나티우스가 말한 것처럼,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에는 보편적 교회가 있다."<sup>4</sup>

1. J. Douma, Another Look at Dooyeweerd, 17, 20에서 재인용. 스킨더가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이나 교회론을 비판한 것은 그 근거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기독교인이 '직분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스 스킨더, 『그리스도와 문화』, 손성은 역 (지평서원, 2017); 김재윤, 『개혁주의 문화관 - 교회 중심으로 본 카이퍼, 스킨더, 제3의 길』 (SFC 출판부, 2015).

2. 칼빈, 『기독교강요』, 4권 1장 2, 7, 8절

3. J. Murray, Christian Baptism (P&R, 1980), 32..

4. Ignatius, Smyrnaeans, viii, 2

####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 루터의 도시를 가다

# 18

할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할레(Halle)는 루터가 태어난 아이스레벤에서 동남쪽으로 20킬로 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했다. 루터는 이 도시를 자주 방문하고 설교하며 복음중심의 신앙과 삶을 역설했다. 루터의 대적자들은 독일 전역에 있었다고 봐야하지만 이렇게 지척에 루터에 맞서는 실력자가 존재할 줄은 몰랐다. 알브레히트 추기경(Albrecht, 1490-1545)이 바로 그였다.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사제의 길을 선택했는데 정치적 수완이 탁월하였다. 24세 때인 1514년 이미 마인츠 총주교 자리에 올랐고 1515년 경에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마인츠 교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추방하도록 했다. 이런 강력한 행동을 통해 알브레히트는 신성로마제국의 정치, 종교계에 주요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형과 함께 북부 독일을 흐르는 오데르 강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설립하는 열정을 보였다.

알브레히트 추기경은 할레에 거주하면서 30년 가까이 루터의 새로운 신앙운동을 저지하는 일을 맡았다. 그는 인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어서 나름대로 교회 개혁을 진척시키려 하였다. 이 일로 울리히 후텐(Ulrich von Hutten)을 초빙하였는데, 그가 루터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알브레히트가 추구한 반루터 동맹은 특히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게 했는데 특히 면죄부 사제로 알려진 테젤(Tetzel)을 후원하였다. 이런 행동은 결국 루터로 하여금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알브레히트의 권력 아래에 있던 할레에서 루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나 할레는 점점 종교개혁의 물결로 새로워갔는데 17세기에 이르러 경건주의 운동의 본산으로 탈바꿈하였다. 도시 중심에 있는 마리아교회는 루터가 설교한 주요 유적 중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1685년 헨델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경건주의의 방대한 서적이 보관된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할레는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대학이 세워지고 학생들이 몰려드는 왕성한 영성을 전파하는 도시로 한동안 명예를 안았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Recommend

지식인의 옷장 임성민 | 웨일북

패션을 알고 난 후, 냉장고 문 다음으로 많이 여는 옷장의 문을 열 때마다 나의 자존감이 한층 탄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패션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이자 타인의 시선을 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하나. “야,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촌스럽나?” 어느 쪽이 당신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나요? 후자가 불쾌하다면 더욱 「지식인의 옷장」을 열어보길 권합니다.

Thanksgiving's Think

## 투자, 미녀 그리고 옷장

패션 피플인 친구가 말을 던진다. “제발 좀 꾸미고 다녀라, 인마!” 한껏 꾸미고 나간 날이었다. 분통이 터져 반박하려는데 친구가 책과 함께 한 마디를 더 던진다. “이거 읽어 봐.”

지금까지 내 삶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다. 작은 키와, 타고난 패션 무감각. 그래서 키 크고 옷 잘 입는 친구 녀석을 언제나 부러워했다. 자존심이 무진장 상하지만 그 녀석이 추천한 책이니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 로봇 트랜스포머가 되어 주마.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나름대로 있었으니 패션도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책 이름부터가 ‘지식인’의 옷장 아닌가? 그렇게 이 악물고 책을 완주한 뒤, 친구와 다시 약속을 잡았다. 낄낄은 2000년대풍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잡았다. 재킷은 카키색으로 입기로 했다. 카키색은 브라운, 블랙 등과 함께 세련된 컬러로 알려져 있다. 재킷 안은 레미제라블의 코제트가 그려져 있는 블루 계열의 티셔츠를 선택했다. 예전이라면 이런 그림이 혁명과 반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불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패션은 이미지를 가져올 뿐 내가 혁명가나 반항아가 되는 건 아니라는 용기를 얻는다. 과감히 일자형 바지를 버리고 슬림핏의 청바지를 선택했다.

패션이 완성되었다. 당당히 친구의 앞에 서자, 높은 썰룩 웃으며 손을 내민다. 나 또한 웃음으로 답하며 ‘ 짹’ 소리 나게 하이파이브를 한다. 오늘날만큼은 스스로가 멋져 보이고 자신감도 충분하다. 용기 내 멋진 옷도 차려입고 주름치마를 던질 차마라고 말하는 교양도 생겼으니 책 한 권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 keyworld

패션 | 판타지 | 물결 | 반항 | 에티튜드

## Thanks Book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헤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식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 목회자들의 뷰(안목)를 넓히기 위해 VIEW를 추천합니다!

저는 2012년 가을학기부터 2015년까지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이하 VIEW)에서 공부한 김인수 목사입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VIEW를 소개하려 합니다.

### Q. 왜 VIEW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나요?

**A.** 2012년 초였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신대원을 졸업하고 부교역자로 사역한지 10년이 되었다군요. 10년 동안의 사역을 반성하며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사역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하프타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떠오른 곳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이었습니다.

### Q. 목회자들은 안식년이나 하프타임으로 보통 목회학박사 과정을 선택하는데 왜 VIEW를 선택하셨나요?

**A.** 학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의 목회현장을 되돌아보면서 목회자들이 성도들 일상의 삶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잘 알려주지 못하고,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갇혀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VIEW에서 신학이 아닌 일상의 이슈를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내가 왜 이런 것을 공부할까 하며 고민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VIEW에서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VIEW는 성도들이 고민하는 삶의 현장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Q.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VIEW에서의 공부 어떤 도움이 되나요? VIEW만의 장점이 있나요?

**A.** 다음 다섯 가지는 어디에도 없는 VIEW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VIEW는 단순히 성경만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닌, 성경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합니다. 둘째, 가정 사역 전문가이신 박진경 교수님에게 성경적인 가정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 적절한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한국 창조론 연구의 선구자이신 양승훈 교수님에게 성경적인 창조론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로키산맥을 4박5일간 탐사하는 “창조론 필드트립”은 양 교수님의 노하우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약성경윤리 전공자이신 전성민 교수님을 통해 한 단계 깊은 성경해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학기마다 개설되는 성경관련 과목들은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폴 스티븐스 교수님에게서 건강한 일터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Q. 마지막으로 VIEW에서의 좋은 기억이 있나요?

**A.** 첫 학기 “창조 타락 구속”의 저자인 알버트 윌터스 교수님의 강의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책을 읽으며 가졌던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저자에게 직접 질문할 때 느꼈던 희열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특별 윌터스 교수님의 단순하지만 막힘없는 대답은 세계관에 대한 편견을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뿐 만 아닙니다. 일터 신학의 대가 폴 스티븐스 교수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도 VIEW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캐나다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신비를 마음껏 경험한 것도 모든 가족이 꿈는 최고의 추억입니다. 목회자와 가족들에게 삶의 재충전과 건강한 사역을 위해 강추합니다.



글 | 김인수

김인수 목사(48세)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희생적인 목회 사역을 지켜보면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기독교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후 안양대와 고려신학대학원(M.Div.)에서 신학을 훈련하였으며, 졸업후 대학선교단체(S.F.C.)와 북한선교단체(SAM)에서 간사로 봉사하였다. 이후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누가행전을 연구하였으며,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성경적인 목회와 다음세대의 세계관 교육과 일상신학에 대해 연구하였다. 아내 김수희와 결혼하여 딸(의민)과 아들(의영)을 두었다. 현재 예정 교신교단의 화평수직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7년 6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800.000	인건비	일반급여	7,399.000	
	임원회비	420.000		기타급여	0	
	일반회비	5,845.000		소계	7,399.000	
		기관후원금	3,3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80.000
		월보구독료	613.000		사무실관리비	707.830
		CTC후원금	170.000		통신비	92.84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0
		VIEW후원금	310.000		소모품비	0
		기타	20.000		식비	500.750
					비품	251.640
			복리후생비		955.140	
			퇴직연금		369.750	
			회의비		849.040	
			교육비	45.900		
			회계용역비	275.000		
			기타	227.157		
	소계	12,528.000	소계	5,155.047		
기타수입	기타수입	30.368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3,500.000	
	CUP매각금(분납)	400.000		CTC후원금	79.725	
	예수금	770.490		VIEW후원금	50.000	
	소계	1,200.858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4,629.725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5,000.000	
	학술지심사비	420.000		인쇄비	0	
	학술지게재료	1,442.500		발송비	680.010	
	학회행사수입	0		소계	5,680.010	
	학회기타수입	0	학회	학회홍보및기타	0	
	소계	1,962.500		학회자료제작비	195.000	
				학회강사료	0	
				학술지심사료	0	
			학회기타	161.000		
			소계	356.000		
	당월 수입액	15,691,358	당월 지출액	23,219,782		
	전월 이월액	43,566,814	차월 이월액	36,038,390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7년 6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000.000	인건비	일반급여	900.000
				기타급여	0
				소계	900.000
			제작비	디자인비	1,122.000
				인쇄비	1,976.500
				소계	3,098.500
			경상비	사무실 임대료	200.000
				사무실 관리비	90.000
				통신비	165.610
				교통비	24.900
		우편발송비		118.750	
		회계용역비		110.000	
		소모품비		51.060	
		식비		49.990	
		도서구입비		10.500	
		회의비		61.200	
	소계	1,000.000	소계	882.01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5-6월)	5,000.000	기타	세금	104.690
	이자수입	10.812		기타	1,500
	후원수입	1,650.000			
	소계	6,660.812		소계	150.730
	당월 수입액	7,660,812	당월 지출액	4,986,700	
	전월 이월액	20,945,109	차월 이월액	23,619,221	

※ (주) 세상바로보기는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No. (2017년 6월 30일 마감)  
Date

## 회원후원

3천 김\*권 3천5백 Susanto \*, 김\*현, 김\*휘, 김\*현, 김\*별, 김\*별, 김\*욱, 김\*호, 김\*주, 김\*원, 김\*근, 김\*원, 김\*희, 박\*현, 박\*근, 박\*일, 생명의강, 손\*일, 옥\*천, 유\*욱, 윤 \*, 이\*민, 장\*수, 전\*식, 장\*영, 장\*화, 조\*진, 조\*래, 주\*탁, 지\*순, 진\*자, 최\*진, 최\*길, 하\*실, 황\*희 5천 강\*용, 공\*건, 구\*덕, 권\*중, 권\*연, 김\*희, 김\*웅, 김\*현, 김\*웅, 김\*욱, 김\*규, 김\*찬, 김\*택, 김\*윤, 김\*경, 김\*명, 김\*심, 김\*우, 김\*영, 김\*아, 김\*창, 노\*욱, 노\*하, 민\*기, 박\*제, 박\*룡, 박\*규, 박\*빈, 범\*철, 손\*웅, 손\*경, 송\*민, 송\*섭, 송\*욱, 신\*혁, 심\*하, 안\*희, 유\*열, 윤\*숙, 윤\*선, 윤\*영, 이\*미, 이\*규, 이\*수, 이\*윤, 이\*재, 이\*화, 이\*인, 이\*홍, 이\*미, 이\*수, 이\*혁, 이\*숙, 임\*연, 임\*준, 임\*숙, 장\*일, 전\*학, 전\*진, 전\*국, 정\*현, 조\*아, 조\*진, 최\*수, 최\*희, 최\*태, 최\*정, 한\*현, 한\*선, 홍\*기 6천 구\*형 7천 김\*우, 장\*정, 전\*규 7천5백 강\*진, 고\*섭, 김\*실, 김\*현, 김\*욱, 김\*우, 방\*기, 엄\*윤, 이\*우, 이\*순, 전\*식, 정\*길 1만 David \*, Lee \* hee suk, 강\*창, 강\*정, 강\*정, 강\*영, 김\*선, 고\*현, 고\*욱, 고\*경, 고\*재, 고\*호, 곽\*인, 구\*희, 권\*호, 권\*규, 권\*영, 권\*범, 김\*평, 김\*식, 김\*원, 김\*호, 김\*화, 김\*운, 김\*수, 김\*욱, 김\*배, 김\*현, 김\*현, 김\*홍, 김\*진, 김\*형, 김\*찬, 김\*미, 김\*성, 김\*국, 김\*철, 김\*경, 김\*수, 김\*애, 김\*범, 김\*일, 김\*경, 김\*민, 김\*인, 김\*진, 김\*령, 김\*중, 김\*라, 김\*준, 김\*호, 김\*내, 김\*람, 김\*른, 김\*호, 김\*규, 김\*숙, 김\*호, 김\*식, 김\*권, 김\*덕, 김\*정, 김\*태, 김\*혜, 김\*혜, 김\*민, 김\*정, 김\*모, 김\*준, 김\*진, 김\*호, 김\*원, 김\*남, 김\*영, 김\*희, 김\*숙, 김\*곤, 김\*민, 김\*규, 김\*성, 김\*현, 김\*수, 김\*룡, 김\*진, 김\*임, 김 \*, 김\*정, 김\*길, 김\*철, 김\*정, 김\*섭, 김\*수, 김\*숙, 나\*훈, 나\*숙, 남\*성, 박\*우, 노\*름, 노\*수, 리\*환, 류\*호, 류\*모, 미\*호, 모\*근, 모\*른, 문\*환, 문\*성, 박\*호, 박\*언, 박\*안, 박\*현, 박\*석, 박\*한, 박\*애, 박\*호, 박\*자, 박\*호, 박\*운, 박\*성, 박\*관, 박\*관, 박\*주, 박\*원, 박\*원, 박\*현, 박\*모, 박\*영, 박\*진, 박\*현, 박\*규, 박\*형, 박\*우, 박\*경, 박\*민, 박\*경, 박\*주, 배\*진, 배\*론, 배\*교, 배\*연, 배\*은, 백\*성, 백\*준, 변\*진,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행, 서\*미, 서\*연, 서\*진, 성\*진, 성\*은, 소\*화, 소\*희, 손\*규, 손\*은, 손\*탁, 송\*정, 송\*철, 송\*호, 송\*상, 송\*미, 신\*규, 신\*민, 신\*형, 신\*자, 신\*훈, 신\*디, 신\*선, 신\*웅, 신\*정, 신\*주, 신\*기, 심\*성, 심\*훈, 안\*주, 안\*석, 안\*열, 안 \*, 안\*혁, 안\*준, 양\*근, 양\*모, 양\*영, 양\*원, 양\*석, 연\*민, 오\*호, 오\*순, 우\*미, 우\*학, 우\*기, 유\*호, 유\*숙, 유\*남, 유\*성, 유\*준, 유\*원, 유\*한, 유\*덕, 유\*민, 유\*준, 유\*희, 유\*환, 유\*은, 유\*무, 유\*원, 윤\*근, 윤\*성, 윤\*선, 윤\*현, 윤\*자, 윤\*근, 윤\*림, 윤\*석, 이 \*, 이\*숙, 이\*연, 이\*지, 이\*심, 이\*철, 이\*현, 이\*섭, 이\*정, 이\*훈, 이\*형, 이\*훈, 이\*동, 이\*복, 이\*현, 이\*원, 이\*수, 이\*주, 이\*근, 이\*급, 이\*수, 이\*찬, 이\*환, 이 \*, 이\*복, 이\*미, 이\*수, 이\*일, 이\*연, 이\*진, 이\*엽, 이\*영, 이\*규, 이\*경, 이\*의, 이\*한, 이\*훈, 이\*재, 이\*준, 이\*석, 이\*재, 이\*희, 이\*규, 이\*기, 이\*길, 이\*일, 이\*현, 이\*국, 이\*철, 이\*환, 이\*성, 이\*섭, 이\*숙, 이\*연, 이\*영, 이\*영, 이\*희, 이\*걸, 이\*성, 이\*리, 이\*로, 이\*진, 이\*선, 이\*일, 이\*진, 이\*진, 임\*민, 임\*진, 임\*현, 임\*복, 임\*연, 임\*진, 임\*택, 임\*섭, 임\*연, 임\*택, 임\*영, 장\*근, 장\*기, 장\*재, 장\*화, 장\*훈, 장\*해(양\*태), 장\*숙, 장\*열, 장\*수, 장\*수, 장\*준, 전\*희, 전\*구, 전\*수, 전\*화, 전\*양, 장\*미, 장\*경식, 장\*섭, 장\*선, 장\*준, 장\*은, 장\*수, 장\*경, 장\*희, 장\*현, 장\*숙, 장\*우, 장\*구, 장\*주, 장\*원, 제\*규, 조\*덕, 조\*연, 조\*하, 조\*호, 조\*희, 조\*우, 조\*현, 조\*상, 조\*주, 조\*형, 조\*준, 조\*용, 조\*지, 조\*경, 조\*선, 조\*신, 조\*영, 주\*식, 진\*웅, 차\*준, 차\*림, 최\*열, 최\*두, 최\*호, 최\*진, 최\*영, 최 \*, 최\*수, 최\*영, 최\*정, 최\*빈, 최\*빈, 최\*진, 최\*정, 추\*연, 태\*숙, 하\*만, 하\*희, 하\*호, 하\*진, 한\*영, 한\*영, 한\*실, 한\*진, 한\*수, 허\*아, 허 \*, 허\*연, 허 \*, 현\*건, 홍\*화, 홍\*화, 홍\*원, 홍\*호, 홍\*석, 홍\*인, 홍\*호, 황\*철, 황\*웅, 황\*준, 황\*환, 황\*서, 황\*경, 황\*숙, 황\*정, 무명 1만5백 김\*현 1만5천 김\*화, 박\*태, 박\*호, 박\*진, 정\*섭 2만 김\*훈, 김\*관, 김\*석, 김\*광, 김\*홍, 김\*욱, 김\*숙, 노\*환, 류\*정, 박\*모, 배\*민, 성\*영, 손\*나, 송\*호, 오\*희, 우\*정, 유\*상, 이 \*, 이\*서, 이\*희, 이\*아, 정 \*, 조\*현, 조\*근, 최\*식 3만 김\*민, 김\*원, 김\*룡, 문\*윤, 문\*영, 문\*호, 박\*진, 박\*현, 박\*주, 서\*록, 손\*욱, 송\*현, 오\*석, 오\*나, 이\*호, 이\*형, 이\*실, 임\*욱, 정 \*, 최\*준, 추\*화, 황\*진 4만 강\*정 5만 김\*락, 김\*호, 박\*식, 서\*희, 윤\*찬, 이\*형, 이\*직, 장\*영, 장\*경, 정\*애, 최\*일, 한\*시, 현\*자 6만 석\*원 7만 김\*욱 8만 권\*아 10만 박\*은, 손\*호, 송\*규, 신\*원, 윤\*철, 전\*식 12만 유\*학, 조\*호, 현\*기, 황\*스더 20만 채\*현

계 8,178,000원

## 기관후원금

5만 글로벌한가주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문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나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예성교회, 제자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강중앙교회, 흰돌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전

계 4,350,000원

## 월간 <월드뷰>

## 광고 후원

삼성전자, 흥성사, DCTY, 기쁨병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월드뷰> 후원계좌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예금주: 세상바로보기)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WORLDVIEW NEWS

## [학회]

### 신앙과 학문 22권 발행 일정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신앙과 학문 22권 발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투고는 상시이며,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인(JAMS) 도입으로 투고는 <신앙과 학문> 잼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되며, 본 단체의 회원에 한하여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앙과 학문> 잼스 홈페이지 : <https://fs.jams.or.kr>
- <신앙과 학문> 22권 발행일정 (상시투고입니다.)

22권 3호 2017년 9월 30일

22권 4호 2017년 12월 31일

- 문의 02-3472-4967 (학회)

## [학술대회]

### 제34회 기독교학문학회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학문”

제34회 기독교학문학회가 “4차산업혁명과 기독교학문”을 기조강연 주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논문 발표 신청을 받습니다.

- 일시 : 2017.11/4.(토)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
- 문의 02-3472-4967 (학회)

## [VIEW]

###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한국지부

VIEW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viewinkorea@gmail.com](mailto:viewinkorea@gmail.com)
- 문의 : 김성경 010-5154-4088 (VIEW 한국지부 행정실장)

## [세계관 강좌]

### 기독교세계관학교는 18년 2월에 시작합니다.

세계관 강좌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세계관동역회는 18년 2월에 “세상 살기”를 주제로 2018년 2월 2일간의 기독교세계관학교를 실시합니다. 3회째 준비되는 ‘기독교세계관학교’는 라브리과 공동주최로 진행며, 18년 2월 실시합니다. 작은교회 수련회, 청년부 단체 및 개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 문의 : 02-754-8004 (세계관동역회)

## [간사 사임] 고한빛 간사

그간 학회 담당으로 수고해온 고한빛 간사가 7월 28일자로 사임합니다. 수고한 주의 자매에게 격려와 축복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 인원 충원은 8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 \*

## 8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8/21(월) 한국라브리공동체 협력 ‘기독교세계관학교’ 회의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안전한 “국소마취 무인공막 탈장수술”

기쁨병원 자체 개발한 ‘최소절개 무인공막 탈장수술법’으로 20분만에 집도



103세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

개원 이래부터 현재(2017. 05. 30)까지 탈장수술 **12,136** 건 달성

기쁨병원은 국내최초로 탈장센터를 개설한 강윤식 원장이 통증과 재발을 획기적으로 줄인 새로운 국소마취 무인공막 탈장수술을 개발하여 국내 지방이나 해외 22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탈장전문 외과병원입니다.



정확 완벽 따뜻  
**기쁨병원**

[www.gipumhospital.com](http://www.gipumhospital.com)

서울 강남구 도곡로 122  
(뱅뱅사거리 위치)

02)570-1234